

# 윤석열 대통령 "디스플레이 산업 新 도약여는 4조 1천억원 신규투자...과감한지원할것"

윤석열 대통령은 4. 4일 오후 충남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에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협력업체 간 신규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디스플레이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여는 '4조 1천억 원의 대규모 신규 투자'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충남이 세계 최초로 OLED를 양산한 곳이라며, 혁신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 분업체계에서 부가가치가 큰 첨단산업 분야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하고, 이 분야에 과감한 지원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3월 충남 아산시 온양 온천역 앞 유세 당시 약속을 언급하기도 했다. 당시 온양 온천역 앞에서 충남 아산을 미래 신산업의 요람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했으며, 정부는 충남을 미래 신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충남이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충남 지역에 2개의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지정했다며, 천안 국가산단과 홍성의 내포신도시 국가산단의 비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천안 국가산단은 모빌리티,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분야에서 연구개발, 신제품, 실증, 양산이 일관 체제로 이뤄지는 최고 수준의 특화단지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고, 홍성의 내포신도시 국가산단은 기존 아산의 자동차 산업 단지 와 연계하여 미래차와 수소 분야 혁신 단지로 키워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의 눈'으로 불리는 디스플레이는 반도체와 함께 IT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 있다며, 휘어지거나 접을 수 있고 돌돌 말 수도 있는 OLED 디스플레이는 LCD에 비해 압도적인 화질을 어떤 형태로든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첨단과 첨단이 만나면 산업적 기회가 생겨난다며, 첨단 OLED 기술이 또 다른 첨단인 AI와 메타버스 기술을 만날 때 무한한 산업적 기



▲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삼성디스플레이 투자협약식에 참석했다.

회가 열리게 될 것이고, 군사 안보 분야의 응용도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간이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OLED 기술 고도화를 위한 R&D 지원을 해,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 1위를 견지하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디스플레이 산업 초기부터 함께 성장한 중소, 중견 소·부·장 기업의 기술력을 더욱 높여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과 생태계를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오늘 OLED 투자를 포함해서 이차전지, 차세대 패키징 분야를 중심으로 천안, 아산, 온양 지역에 향후 약 52조 원의 신규 민간 투자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토지이용규제 완화 등을 통한 신속한 산업단지 조성 과 기업 유치로 충남의 첨단산업 생태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외에도 국립경향병원 설립, 금강변 역사문화관광 단지 조성, 광역 교통망 확충 등 충남이 추진하는 여러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오늘 투자협약식은 지난 3월 15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2026년까지 6대 첨단산업 분야에 총 550조 원 이상의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한 첨단산업 육성전략의 첫 이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조 1천억 원 규모의 이번 투자가 완료되면 차세대 IT용 OLED 생산시설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스마트폰 OLED 패널 시장에 이어, 노트북·태블릿 등 IT용 OLED 시장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패널 생산력을 확보하게 된다.

태블릿 패널 생산성이 2배 이상 높아지고, 설비·건설투자 및 장비 구축 등 투자 과정에서 약 2만 6천 명 규모의 고용창출 효과가 생긴다. 또한 지역 내 소·부·장 기업의 매출 증가를 이끌어내는 등 충남·아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글로벌 첨단 OLED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첨단산업 육성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이며 발표된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초격차 기술력 확보, 혁신인

재 양성, 국가 첨단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OLED 생산기술 혁신 과 응용제품 개발에 4,200억 원 규모의 R&D를 추진하는 한편, 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 계약학과 및 현장 중심 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9,000명의 선도인력을 양성해 나갈 예정이다.

오늘 투자협약식에 앞서 윤 대통령은 디스플레이 신제품 시연장에 들러, 휘어지는 '플렉서블 구동 모듈', 돌돌 말리는 '롤러블 플렉스' 등 첨단 기술의 구현 현장을 둘러봤다.

또한 투자협약식에 이어 OLED 모듈 라인을 시찰하고, 혁신 기술 개발 과 효율적 양산으로 디스플레이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현장의 직원들을 격려했다.

오늘 개최된 삼성디스플레이 신규 투자 협약식에는 삼성디스플레이 및 소·부·장 기업 임직원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태홍 충남도지사, 박경귀 아산시장, 국회의원, 학계 및 연구계 인사, 학생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했다.

최광수/기자

## 경북도, 올해 전기자동차 3만대 시대 열어...

전기자동차 지난해 보다 1316대 늘려 1만1015대 보급 계획

경북도는 올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지난해 보급량 9699대 보다 1316대 늘어난 1만1015대를 목표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매 보조금은 차종, 차량 가격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전기승용차는 최대 110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1800만원, 전기이륜차는 160만원까지 지원한다.

차종별로는 전기승용 5437대, 전기화물 3694대, 전기버스 69대, 전기이륜 1815대를 구매 지원한다.

최근 경북도의 전기차 누적 등록대 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해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어, 올해는 전기차 보급 3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다.

2013년 민간보급시작 이후 2018년까지 6년간 2001대에 불과했으나, 2019년 4051대, 2020년 7051대, 2021년 1만1240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1만9154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는 3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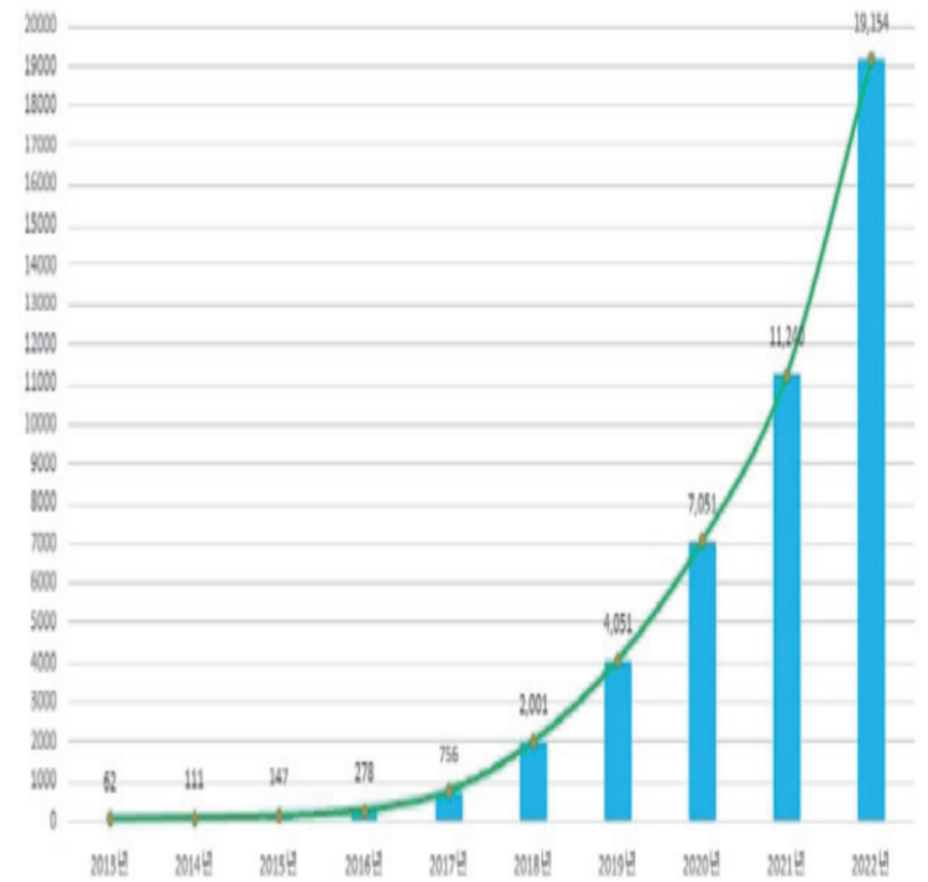
전망하고 있다. 보급일정 등 공고문은 시군 홈페이지 및 무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을' 참고하면 되고, 구매를 희망하는 차종의 자동차 대리점(제조사)을 방문해 차량을 계약하고 계약서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해당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3월말 기준 도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는 총 1만455기로 충전기 1기당 전기차 1.83대로 우수한 수준이다. 경북도에서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군별 수요지를 파악해 충전기를 더욱 늘릴 계획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무공해자동차의 보급은 대기질 개선과 수송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고 미래 세대 건강권 확보를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경상북도 전기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추이



<http://chunhyang.org>

# 빛을그리다

## 2023.5.25<sup>목</sup> ~ 5.29<sup>월</sup>

제93회 **남원** 춘향제

### Chunhyang Festival

·주최 | 남원시 ·주관 | 제93회 춘향제전위원회 ·후원 | 전라북도



# 충청남도의회 오인철 의원 '도로도 복지다'... 624 지방도 착공 서둘러야

## 턱없이 부족한 지방도...유지관리비 예산 추경서 적극 확보 주문

충청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29일 제343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지방도 624호 지지부진한 공정과 지방도 예산 감액 편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오 의원은 "지방도 624호는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부터 천안시 직산읍 상덕리 구간 도로로, 2019년 7월 시작해 2022년 4월 준공 계획이었다"며 "2023년 4월이 도래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질타했다.

이어 "지방도 유지관리 예산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증액돼 왔지만, 2022년 464억 3천만 원에서 올해는 450억 5천만 원으로, 13억 8천만 원이 감액됐다"며 "증액해

도 모자란 상황에서 감액이라니, 이 예산으로는 지방도를 유지관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인건비, 자재 가격 등 전체적인 제반여건이 상승했는데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지방도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도가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도로도 복지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추경을 통해 적극적으로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도지사는 "지방도 유지관리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2023년 12월 지방도 624호 완공 시기까지 준공 및 보상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정근기자



# 경기도의회, 2023년 제1회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경기도의회가 4월 4일부터 7월 27일까지 도내 초·중·고 25개교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780여 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한다.

올해 첫 의회교실은 시흥 송운초등학교 학생 26명이 참여하여 1일 청소년 의회원으로서 '소년법과 촉법소년'에 대한 자유발언 및 '동물실험 폐지' 관련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에 이르기까지 조례 제정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동현 의원(더민주, 시흥5)은 학생들의 모의의회 체험 과정을 지켜 보고, '도

의원과의 대화'에서 도의원이 하는 일과 본회의 안전처리 방법 등에 대해 평소 학생들이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 재치있는 입담을 펼치며 학생들과 소통했다.

그중 의원 생활을 하며 힘든 일은 무엇이나 학생의 질문에 정해진 근무시간 없이 "수시로 발생하는 지역 현안을 돌봐야 하는 고충도 있지만 내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어 가치있고 사명감이 생겨 좋다"고 답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코로나의 여파로 현장체험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의회교실 진행 및 경기도의회 본회의 체험관에서의 모의의회 병행 운

영으로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행사 진행을 1·2·3부로 나눠 모의의회는 본회의체험관에서, 본회의장에서는 OX퀴즈와 수료식을, 마지막엔 경기마루를 견학하는 등 프로그램 운영장소를 세분화하여 학생들에게 경기도의회의 곳곳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편, 금년 청소년의회교실은 상반기 28회, 하반기 12회 등 총 40회 운영으로 관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학교 밖 민주주의의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혜영기자

#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현장방문 및 직원소통 간담회 가져

## 황계동 적환장·동부출장소·동탄출장소 방문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과 박진섭 부위원장, 김영수, 배현경 의원은 지난 3일 ▲ 황계동 적환장(황계동 102-12) ▲ 동부출장소(병점3로 23) ▲ 동탄출장소(동탄역로122)를 찾았다.

의원들은 관내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운영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동부출장소와 동탄출장소에서는 7급 이하 실무자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대민업무 개선방안·출퇴근 거리를 고려한 인사·복지여건 향상 등 다양한 주제로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화성시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직원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제도 보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최병용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 방문, 전화,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안부 확인 △ 주민모임 등을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 지원 △ 고독사 위험자를 위한 주거, 일자리 제공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보건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남은 도 단위 광역자치체 중 유일하게 전체 사망자 대비 고독사 비중이 매년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12.7%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12월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고독사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1인 가구, 주거 취약성, 사회적 관계망, 경제활동 등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례 개정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고독사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사업실시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전라남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정해명기자

# 영광군의회, 제271회 임시회 개최

영광군의회는 4월 5일에 제271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4월 18일까지 14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일부터 1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며, 심사된 안건들은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의회 청소년 의회교

실 운영 조례안'등 5건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영광군수가 제출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광군 e-모빌리티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등 10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장기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 영광군수가 제출한 ▶'영광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7건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는데 위원장에 조일영 의원, 간사에 장영진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이동순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경제부:내선 (114)	오케니언부: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Goyang 2023 International Horticulture Goyang Korea

# 고양국제꽃박람회

일산호수공원 Ilsan Lake Park 2023.4.27-5.8

생활 속의 꽃 Flower in the Life

고양국제꽃박람회 Goyang International Flower Foundation



### 금천구, KBS 전국노래자랑 공개 녹화 '성료'



금천구는 4월 4일 금천체육공원에서 관람객 5,000여 명의 뜨거운 성원 속에 국내 최장수 프로그램 'KBS 전국노래자랑 금천구편' 공개 녹화를 마쳤다고 밝혔다.

전국노래자랑은 43년 역사를 자랑하는 KBS 대표 인기 프로그램이며, 지난 2015년에 이어 8년 만에 다시 금천에서 열렸다.

전국노래자랑 금천구편에서는 지난 2일 금나래아트홀에서 진행된 1·2차 예심을 거쳐 최종 합격한 15팀이 출연해 실력과 매력을 마음껏 발산했다.

개그우먼 김신영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초대가수로 배일호, 현숙, 서지오, 류지광, 정대양이 출연해 무대를 빛냈다.

이번 KBS 전국노래자랑 금천구편은 KBS 1TV에서 4월 23일 방영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코로나19 이후 서울에서 최초로 추진된 전국노래자랑 금천구편을 통해 힘든 시간을 견뎌온 구민들이 봄 햇살처럼 따뜻한 위로의 시간을 보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향신/기자

# 서울시 한성백제박물관-대가야박물관, '가야, 백제와 만나다 II \_ 대가야' 전시회 운영

### 한성백제박물관·대가야박물관, 두 번째 공동 기획 전시 개최

한성백제박물관은 대가야박물관과 공동으로 '가야, 백제와 만나다 II \_ 대가야' 특별전시회를 4월 7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성백제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가야, 백제와 만나다'(2017) 전시회의 후속으로 기획됐다. 대가야 관련 최신 발굴성과를 비롯하여 대가야와 백제의 관계를 보여주는 금동관모, 봉황장식 고리자루 큰 칼의 유물을 소개한다.

본 전시는 대가야의 성립과 발전, 고령 송림리 토기 가마 유적, 지산동 고분군 발굴성과 및 대가야와 백제의 교류와 영향을 잘 보여주는 유물 등 4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부 '대가야, 나라를 세우다'에서는 가야의 성립과 발전, 대가야의 성장과 후기 가야연맹을 중심으로 연출했다.

제2부 '대가야, 토기를 만들다'에서는 고령 송림리 토기 가마에서 출토된 유물을 통해 대가야 사람들이 어떻게 토기를 만들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토기를 굽는 과정에서 찌그러지거나 깨진 조각들과 폐기장에 버려진 조각들을 통해 대가야의 토기를 다양하게 만나 볼 수 있다.

제3부 '대가야, 무덤을 남기다'에서는 대가야 무덤의 구조와 제작 방식,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을 살펴본다. 대가야의 가장 대표적인 무덤이라 할 수 있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 출토된 굽다리 접시·그릇받침·긴 목 항아리 등의 토기, 큰 칼 등의 무기, 다양한 철기를 통해 대가야의 뛰어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다.

제4부 '대가야, 백제와 만나다'에서는 백제와 대가야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했음을 잘 보여주는 금동관모와 봉황장식 고리자루 큰 칼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가야 토기 조각들도 함께 볼 수 있다.

이번 전시회는 해당 기간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오후 7시에 운영되며,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전시회와 연계하여 시민 강좌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성백제박물관은 앞으로도 선사·고대에 대한 조사와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여러 기관과 꾸준히 협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더 많은 시민이 백제를 비롯한 한국 고대사를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할 계획이다.

최광수/기자



### 서초구, 2023 상반기장애인 건강주간 프로그램'운영

서울 서초구는 장애인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질병의 조기발견, 치료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장애인 건강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방배보건지소에서 진행되는 '장애인 건강주간 프로그램'은 일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기 불편했던 지역 내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및 장애인 100여 명에게 사전 예약을 통한 무료 건강검진·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검진 시 신체계측, 혈액검사(20종), 소변검사(10종), 흉부 방사선검사, B형 및 C형 간염검사, 결과상담 등 다양한 검진항목을 무료로 제공한다. 만 20세~64세 대상자는 보건소 대사중후군관리센터와 연계된 대사중후군 검사 및 상담도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이외에도 검진 결과 간염 항체가 없어 예방접종이 필요한 경우 구에 등록

된 심한 장애인은 보건소 및 방배보건지소에서 무료접종도 가능하다.

건강검진 대상자 중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은 방배보건지소의 재활치료실 이용이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하여 재활치료실 방문이 어려운 지체·뇌병변 장애인은 전문 치료사 두 명이 자택을 직접 방문해 근육운동, 관절운동, 일상생활 동작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재활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구는 매년 상·하반기 『장애인 건강주간』을 운영하고 장애인 요가교실, 운동교실, 장애발생 예방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장애인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동희/기자

## 경기도교육청, 지역 특색 살린 늘봄학교 모델 구축 위해 밀착지원 강화

### 권역별·유형별 네트워크 운영으로 현장 지원 강화, 행정업무 경감

경기도교육청이 지역교육청 업무 담당자들과 늘봄학교 시범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안정적 정착 방안을 모색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월 늘봄학교(80교) 시범운영으로 초·1 적용기간 에듀케어를 실시하여 학생의 학교 적응을 돕고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완화했다.

시범운영교에서는 돌봄교실 대기 학생과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다양한 놀이·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1학기 에듀케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와 밀착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늘봄학교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특색을 살린 늘봄학교 모델

을 구축하기 위해 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운영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권역별·유형별 네트워크 운영 ▲늘봄학교 추진 과제에 대한 지원 방안 협의 ▲학교 행정업무 경감 사례를 공유했다.

도교육청은 25개 교육지원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네트워크를 구축해 권역별 책임 담당제를 운영하고, 과대·과밀, 일반, 소규모, 지역사회 연계 4개 유형별 특징을 고려해 밀착지원 한다.

늘봄학교 지원을 위해서는 ▲과대·과밀교 돌봄 대기 해소를 위한 1학기 에듀케어 확대 운영 ▲돌봄 거점시설 구축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방과후교실 시설 구축

▲강사 연결 ▲디지털 학력 향상 '하나더' 프로그램 우선 지원 ▲지역사회 연계 교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등의 방안을 안내했다.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들은 ▲초1 에듀케어와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의 강사로 관리·지급 ▲아침돌봄 위탁업체 선정·계약 후 학교 연계 등 학교의 행정업무 경감 사례를 공유했다.



조혜영/기자

## 경북교육청, 반부패·청렴옴부즈맨 정례회 개최

### - 제도개선 및 자문으로 청렴 정책 신뢰도 향상

### - 임종식 교육감, "위원 의견 정취, 정책 반영 청렴도 향상에 최선"

경북교육청은 지난 4일(화) 교육현장의 고충 민원 해결과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반부패·청렴옴부즈맨 정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반부패·청렴옴부즈맨은 변호사, 대학교수, 전직 공무원 등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정례회는 7명의 위원이 참석해 ▲청렴옴부즈맨 활동 결과 및 계획 ▲종합청렴도 평가 추진 방향 ▲청렴 옴부즈맨 규칙 정비 ▲청렴 정책 아이디어 공모 심사 등 교육행정 분

야 청렴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반부패·청렴옴부즈맨의 객관적인 의견과 법률적 자문은 경북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청렴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올해도 반부패·청렴옴부즈맨 위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우리 교육청의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성동구, 2023년 협치회의 열린분과원 위촉

서울 성동구가 지난달 23일 2023년 협치회의 열린분과원 57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협치와 의제발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협치 기본교육을 진행했다.

성동구는 민관협치로 지역사회 현안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협치사업 의제 발굴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자 지난 2월부터 2주 간 협치회의 열린분과원을 공개 모집했다.

열린분과원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보건복지, 마을자치, 도시환경, 교육문화 등 4개 분야에서 분과별 협치사업 발굴 공론장과 속의 공론장에 참여하여 민관협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2024년 성동구 협치 의제'를 제안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러한 의제발굴 공론장을 통해 지난해 발굴되어 올해 추진되고 있는 성동구 협치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구민의 홈페이지 이용 볼

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이용자 중심의 신속 예약시스템 통합구축'과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형 탄소흡수 녹지구축'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2022년 협치회의로 추진한 '커피박 업사이클링' 사업은 버려지는 커피박을 재생플라스틱과 재생목재로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제1회 대한민국 지식대상'과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 평가하는 전 과정에 주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협치사업의 과정이야말로 참여민주주의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며 "열린분과원의 자발적 참여로 성동 협치가 더욱 발전할 것을 기대하며, 성동구에서는 협치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강성원/기자



## 전남교육청, 초기문해력 교육 교원연수 실시

전남남도교육청이 기초학력전담교사와 초등 저학년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기초학력 역량 강화 읽기따라잡기 연수'를 실시한다.

한글 책임교육 실현과 초기문해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는 매주 화요일 3시간씩 실행 연수 형식으로 오는 7월까지 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총 45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연수 과정은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할 수 있도록 초기문해력 검사 및 실제성에 기반한 읽기, 쓰기 활동을 실행 연구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일상 수업의 사각지대에 놓이

기 쉬운 읽기 곤란 학생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교육이 이뤄져 교육복지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

연수에 참여한 배지영 교사(화순제일초)는 "이번 연수를 통해 학생에게 읽기 유창성을 길러주고 다음 학년으로 연결해 주는 징검다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노명숙 유초등교육과장은 "기초학력 강화 및 지도 전문성 향상을 위해 초등 3~6학년 교육과정 연계 문해교원 연수, 기초학력 진단 도구 활용 교원 연수 등 관련 연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해명/기자





# 용인특례시, 반도체마이스터고 신설 위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과 업무협약

### 용인반도체마이스터고(가칭) 신설 지원 위해 SK·삼성·램리서치 등 40개 기업과 잇달아 협약 체결

시는 삼성전자(주), SK하이닉스(주), 램리서치, 서플러스글로벌 등 40개 반도체 관련 기업과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가칭) 지정·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8일 SK하이닉스(주)와, 같은 달 14일에는 삼성전자(주)와 협약을 맺었다.

지난 3일에는 램리서치코리아와 협약을 체결했다. 램리서치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기업이다.

시는 ㈜서플러스글로벌, 로보앤디자인, 세메스(주) 등 37개 반도체 관련 소·부·장 기업들과도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한 탄탄한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업은 (가칭)용인 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 지정과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온라인 교육 과정, 교사의 온·오프라인 직무 기술지도 지원과 학생들의 교육 실습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각 회사의 채용기준에 따라 반도체마이스터고 출신 학생들을 우선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15일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시의회, 강남대, 경희대, 단국대, 명지대, 용인에술과학대, 한국외대, 용인상공회의소,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산·관·학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용인 반도체마이스터고 지정 추진 민관협의체'도 발표했다.

시는 지난달 15일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 용인시의회, 강남대, 경희대, 단국대, 명지대, 용인에술과학대, 한국외대, 용인상공회의소,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산·관·학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용인 반도체마이스터고 지정 추진 민관협의체'도 발표했다.

시가 신설을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마이스터고가 교육부로부터 마이스터고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반도체 인력을 양성하

는 뜻에서 산·관·학이 힘을 모은 것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가 반도체 관련 기업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산·관·학이 함께 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이 용인 반도체마이스터고 신설과 지정에 큰 동력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분야 등을 가르치는 반도체마이스터고 신설은 제 공약인 만큼 꼭 성사시킬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선식 삼성전자 부사장(DS산학협력센터장)은 "우수한 반도체 인재

를 양성하는 일에 용인특례시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서줘 감사하다"며 "삼성전자도 사업장 연구자인 용인의 반도체마이스터고 설립과 우수한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동섭 SK하이닉스(주) 대외협력사장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성패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문제이므로 SK하이닉스도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통한 인재 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백암면 백암고등학교 운동장 부지 2만1000㎡에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가칭)용인 반도체마이스터고등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이상일 시장은 장상운 교육부 차관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각각 두 차례 만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신설하는 반도체 고등학교는 시스템제어 및 반도체 소프트웨어 분야 2개 학과를 개설, 학년당 64명을 모집해 총 12학급 192명 규모의 학교로 운영할 계획이다.

조혜영/기자

# 김경일 파주시장, 문화예술인과 직접 소통하는 '이동시장실' 운영



김경일 파주시장이 4일 헤이리 커뮤니티홀에서 파주시 문화예술인과 직접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갖는 '이동시장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동시장실'은 시민과의 대화를 중시한 김경일 시장의 소통 행보로, 시장실이 아닌 직접 현장에 방문, 기업인을 비롯한 각종 직능단체와 소통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김경일 시장의 의지다.

문화예술인과 함께하는 이동시장실에는 헤이리 예술마을, 파주 예총, 박물관장, 파주문화예술포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파주시 문화예술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이동시장실은 문화예술인들과 함께하는 만큼 파주시립예술단 중창과 헤이리 심포니오케스트라 연주 등 작은음악회도 함께 운영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문화예술은 미래를 향한 힘으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예술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며 "파주시는 문화예술이 지역경제와 선순환을 이루는 새로운 길을 여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 화성시,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 개최

### 4일, YBM 연수원에서 '제6기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

화성시가 4일 오전 10시 YBM연수원에서 '제6기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2011년 도입된 제도이다.

올해는 총 56명의 시민이 위원으로 위촉돼 오는 2025년 3월까지 2년간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의 타당성 검토, 예산과정 의견제출, 주민참여 예산제 홍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이 직접 주민참여예산위원 56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으며,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 교육과 임원선출 등이 진행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선정한 주민제안사업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는 만큼 시장으로서 세심하게 살피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올해 2023년도 본예산에 주민제안사업 58건, 51억원, 주민숙원사업 199건, 83억 원을 편성했다.

양시현/기자

# 이현재표 시민소통시스템 통(通)했다...하남,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전국 1위 '국무총리상'

### 이현재 시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께 '하남시 기준인력 및 기준인건비' 현실화 요청

하남시는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 공동 주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시상식에서 전국 1위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하고, 시상금으로 특별교부세 1억 5천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 등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3개분야 18개 지표에 대해 평가하는 것으로, '민원행정 관리기반',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처리' 항목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수상은 민선 8기 하남시가 추구하는 시민 중심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소통시스템 구축 노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미쳤다.

이는 △이동시장실 및 민원의 날(열린시장실) 운영 △원스톱(ONE-STOP) 하남민원 시스템 운영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만족도 시노력 상시 운영 등 민원 서비스 향상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날 수상에 대해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무총리상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올린 것은 공직자와 시민들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더욱 더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이라는 시정 슬로건을 실현하도록 최선의 노

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현재 시장은 시상식장을 방문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환담자리에서 하남시 공무원 수 부족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하남시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난 해결을 위해 전체 가구 수의 60%에 달하는 4개 신도시(미사·위례·감일·

교산) 조성에 따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수도권 유사 지자체와 비교해 공무원수는 절대적으로 부족, 폭증하는 민원에 대한 행정수요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부족한 인력에도 종합평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생산성 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지방자치단체혁신평가-재정신속집행 우수기관 선정 등 기관 평가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적극적인 행정효율화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임기제·공무직 등 정원의 인력이 678명으로 기준인력의 77.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기준인력 및 기준인건비 현실화돼야 행정혁신과 함께 질 높은 민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며,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 차관은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강호/기자

# '친환경 시민장터' 광명사랑 녹색나눔장터로 오세요

### 8일 광명스피돔 페달광장에서 '광명사랑 녹색나눔장터-세알가게' 열려

광명시는 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광명스피돔 페달광장에서 '2023년 광명사랑 녹색나눔장터-세알가게'를 운영한다.

녹색나눔장터는 광명시가 운영하는 친환경 시민장터로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재사용 중고물품을 서로 교환·나눔하며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행사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역공동체 문화 확산과 자원순환 구조 실현에 기여하고자 녹색나눔장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환경 피해를 줄이는 에코디자인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녹색나눔장터에는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에 입주한 7개 기업을 포함해 10개 기업이 에코디자인 제품 판매 부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에코디자인 제품 판매 부스에서는 ▲재생가죽 패션잡화 ▲업사이클 생활용품 및 반려견 용품 ▲빨아 쓰는



다회용 위생팬티 ▲천연 밀랍초 등 다양한 환경 피해 저감 디자인 상품을 전시, 판매한다.

수익 일부는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어려운 곳에 기부할 예정이다.



장기자랑, 도전광장복합댄스, 에어바운스 등 가족 단위 관람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려진다.

윤용민/기자

# 김경희 이천시장, 남부시장실 운영으로 주민숙원 착착 해결

28일 새벽 4시 50분 장호원 터미널에서 이천시내를 운행하는 114번 좌석버스가 첫 운행을 시작했다. 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해 중단됐던 장호원~이천~광주터미널 운행 노선이 재개된 것이다.

3년전 코로나19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부터 장호원을 경유하는 직행버스 운행이 중지됐고 다수의 주민들이 남부시장실을 방문하여 시내를 오가는 불편을 호소했다.

이천-장호원간 이를 해결하고자 관련 운송사업자 및 광주시와 수차례 협의를 했고 114번 좌석버스가 장호원을 경유하여 운행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지난 3월 28일을 시작으로 이천~광주간 운행중인 114번 좌석버스를 장호원터미널까지 연장운행함으로써 이천시 남부권역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된 것이다.

이천-장호원간 좌석버스 개통식에 참석한 주민 한분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직행버스 노선이 없어지면서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이천터미널에 가려면 많은 40개 정류소를 거쳐서 가야했는데 좌석버스 노선이 생기니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도 반으로 줄어 버스 이용이 편리해졌고, 무엇보다 시장님과의 소통이 잘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남부시장실은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 유관기관 협의 및 예산편성 등 제반절차를 거쳐 이달초를 시작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둘 나타나고 있어 시민생활불편 해소의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장호원읍내에 소재한 엘리아병원에서 야간진료 업무를 개시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고, 봄철 고춧대·깻단 등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금지로 인한 불편민원에 대해서는 영농부산물 파쇄기를 도입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고령농업인과 여성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마을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폐슬레이트 처리를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전수조사를 시작해 이달 중순부터는 순차적으로 수거 처리도 진행될 계획이다.

남부시장실을 방문한 주민 한분은 "남부권은 도로, 교통 등 기반시설뿐만 지역개발에서도 열악한 지역이다. 거기에 코로나팬데믹까지 더해 그동안 불편을 참고만 지내왔는데 남부시장실이 생기고부터 해묵은 숙원사업들이 하나둘 해결되어 가고 있어 시장님과 시에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경희시장은 "시민들의 일상이 편안하며 활력이 넘치는 이천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민선8기 이천시정에 대한 시민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시정을 이끌어가는 김경희 시장의 시정운영 방침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 3월부터는 현장소통을 확대하여 첫째, 셋째주 화요일에는 남부시장실에서, 둘째, 넷째주 화요일에는 남부권 외 10개 읍면동에서 기업체 방문,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천시 발전방안 등에 관해 허심탄회한 소통을 이어가는 사이다토를 운영하고 있다.

이성열/기자



### 안성시, 공공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안성시는 2023년 1분기에 682명의 단기 공공일 자리를 시민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제공된 일자리는 국가지정 문화재 안전경비원,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자, 불법 주·정차 계도요원, 주요 도로변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인부 등 20개 이상 분야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한 대·내외적 악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청년들에게 소소하게 일상 속 희망이 되고 있다.

안성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매월 행정과에서 통합채용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업부서와 읍·면·동에

서도 직접 채용하고 있어 채용을 원할 경우 안성시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주기적으로 참고하면 된다.

통합채용이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채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과에 채용의뢰를 하면 일괄 채용해주는 방식으로 채용의 경제성, 절차의 일관성·공정성을 위하여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일자리가 필요한 안성시민에게 골고루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공정한 절차를 거쳐 채용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한편, 나아가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살기좋은 안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혜영/기자

### 2023년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 시흥시 대상

경기도는 지난 4일 오후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년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시흥시가 '주민참여형 정이마을 교육자치'로 대상을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연대회는 전년도 시군 대표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시상하는 행사로, 올해에는 수상 시군에 총 2억 2,500만원의 우수사업비가 지원된다.

이는 민선8기 들어 4.5배 이상 예산을 확대한 것으로, 주민자치 우수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대 지원을 통해 주민에 의한 진정한 주민자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경기도의 의지를 보여 준다.

이번 대회에는 1차 서면심사에 참여한 29개 시군 중 선정된 15개 시군이 참가했으며, 각 시군의 대표 주민자치 우수사례를 해당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발표하며 진행됐다.

주민자치 분야 전문가로 이뤄진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대상은 시흥

시 ▲최우수상은 수원시 ▲우수상은 고양시, 남양주시, 김포시 ▲장려상은 화성시, 부천시, 안산시, 광명시, 하남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포천시, 과천시가 수상했다.

대상을 차지한 시흥시 정왕2동 주민자치회의 우수사례 '주민참여형 정이마을 교육자치'는 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모두가 교육주체로서 학교의 문을 열고 마을에서 교육에 대해 논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 체인지메이커, 학부모 마을활동가 양성 사업 등을 통한 모두가 함께하는 마을교육자치를 내용으로 한다.

유태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올해에는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 마련을 위해 주민자치 예산을 크게 확대했다"며 "주민자치를 위한 여러분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민이 주인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 이민군 안산시장,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최종보고회 주재... "안전관리 총력"

안산시는 이민군 시장이 지난 4일 제19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최종보고회를 주재하고 안전관리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이번 최종보고회는 이민군 시장과 관련 부서장, 단원경찰서 및 안산소방서, 자원봉사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다음달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안산문화광장 일원에서 진행되는 제19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광장', '도시', '술', '횡단'이라는 4가지 키워드를 선정하고 유명 해외 및 국내 작품을 선

보인다. 아울러, 관내 5개 대학의 공연을 포함해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 등을 시현해 시민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축제로 채울 예정이다.

이민군 안산시장은 "올해는 4년 만에 마스크 없이 열리는 축제로 예년보다 많은 시민들이 축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광객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다.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하게 축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최정부/기자

### 오산시, 재난발생!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소통

오산시는 지난 3일 재난 발생 시 일상 사물난한 현장 대응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통신 단말기 사용자에게 대한 교육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난 대응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전용으로 구축된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유관 기관들의 신속한 의사소통과 효과적인 현장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원재 오산시장을 비롯해 시청 각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안전통신망(PS-LTE)의 구축 배경과 단말기 조작 방법 등을 숙지하고 재난상황실과 재난안전대책본부, 그리고 현장 본부 간 지시 및 보고체계 시나리오를 실습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기존 경찰, 소방 등 재난 관련 기관별로 각기 다른 통신방식을 사용해 기관 간 정보공유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구축한 전국 단일의 무선통신망을 말한다. 오산시는 오산소방서, 오산경찰서 함께 24시 대비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안전 통신망 교육 및 유관기관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상황 발생 시 신속 정확한 지휘통신 체계를 갖추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양시현/기자



## 경기도 특사경, 산림내 불법훼손 행위 집중 단속

#### ○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무단 산림훼손 행위 집중 단속

#### - 불법 형질변경 및 용도변경, 무허가 벌채행위 등 중점 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산림 내 불법 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는 사전에 항공사진 비교 등을 통해 불법 훼손 행위가 의심되는 곳들을 특정했고, 이곳들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임목 또는 임산물용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굴취하는 행위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찰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

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에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11.5ha(1.115km) 규모의 산림이 불법행위로 사라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림 내 불법 훼손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의 자산인 건강산림을 보전하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조혜영/기자

### 이동환 고양시장, "고양국제꽃박람회 성공 개최 총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3주 앞으로 다가온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동환 시장은 5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2023고양국제꽃박람회' 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4년 만에 개최하다 보니,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이나 홍보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면이 있다"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한 "순천정원박람회 등 이미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꽃 축제 간 경쟁 중이기에, 고양시만의 차별성 있는 축제를 만들지 않으면 전국 축제로서의 고양국제꽃박람회는 퇴색될 것"이라며 "색깔 있는 축제 준비를 지시했다."

나아가 "꽃박람회에 온 관광객들이 행사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의 다양한 명소를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연계 관광코스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고양 국제꽃박람회 기간(4.27.-5.8.) 중 고양시에서는 대한민국 야간관광 100선에 선정된 행주산



성 야간축제인 '행주가 예술이야' 등이 열린다.

이 시장은 "꽃박람회가 고양시의 대표축제인 만큼, 전 부서가 합심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직원들의 입장권 판매 및 행사 지원을 격려했다.

시는 꽃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행정종합대책반을 7개반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행정종합상황실 운영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홍보, 교통대책, 청소·광

견함을 남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의회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거나, 시장의 관심 사업이라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심지어는 집행부의 업무추진비까지 삭감하는 행태를 보면서 '과연 시민을 위한 의회가 맞는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사업에 대한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보완하고 논의 후 수정하면 뭐에도 필요성이나 적절성은 묻지도 않고 합리적 이유 없이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해 상당한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이에 "민선8기에 들어서 1년간의 소모적인 정쟁으로 인해 직원들에게는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의회와의 생산적인 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시민 행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과 성과·노력에 기반한 객관적인 근무성적평정, 부서별 유익적 협업 강화, 산불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철저, 마음의 여유 및 건강관리 등을 당부했다.

한영기/기자

### 최대호 안양시장 등 경기도 시장·군수,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건의키로

#### 안양시,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14차 정기회의 개최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한 경기도의 시장·군수들이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에 경기도를 포함할 것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4일 안양박물관에서 제14차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현행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30만㎡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 시장·군수에 한해 100만㎡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입법·행정예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 시장·군수들은 개발 및 해제 요구가 많은 수도권을 감안하지 않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 해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행정권한 위임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이번 권한 확대에 경기도가 포함돼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4대 협의회장을 맡고있는 최대호 안양시장은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거주민 불편과 사유 재산권 제약 등 문제로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및 관리방안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그동안 협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장·군수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며 "오늘 선출된 제5대 협의회장님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현안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데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공급시설 설치기준 완화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건축법상 도로규정 완화 ▲전기차 충전시설 부대시설 조항 개정 ▲기업 입지 마련 위

한 관련지침 개정 건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기간 연장 및 재추진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개발제한구역 정책 발전을 도모하고자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장·군수로 이뤄진 본 협의회는 지난 2015년 구성 후 약 100건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신우용/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글로벌센터 새단장 완료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거주 외국인들의 정주 지원을 돕는 IFEZ글로벌센터가 새 단장을 마무리했다.

인천경제청은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근 IFEZ글로벌센터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새로 오픈했다고 5일 밝혔다.

공사는 다목적 공간과 사무공간이 혼재되어있던 구조를 분리하고 외국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특히 IFEZ 외국인 커뮤니티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

커뮤니티 미팅룸을 조성하고 다목적 공간을 재구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와관련, IFEZ글로벌센터는 지난달 30일 'IFEZ Global Center Reopening Day(IFEZ글로벌센터 리오픈 데이)'를 지정, 외국인들에게 개방하고 알렸다.

이날 'IFEZ글로벌센터 리오픈식'에는 인천경제청 관계자들과 녹색기후기금(GCF), 유엔거버넌스센터(HUPOG) 등 국제기구 관계자, 외국인 커뮤니티 대표 등 10여명이 넘는

외국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리오픈식에 참석한 외국인 커뮤니티 'CATCHY(갈이)'의 산탈 파우리(Chantal Faures) 대표는 "IFEZ글로벌센터가 개방감 있고 편안히 머물다 갈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어 매우 좋다"며 "특히 새롭게 조성된 미팅룸이 아주 멋진데, 이곳에서 커뮤니티 회원들과 같이 회의하고 모임을 가질 생각에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경원 인천경제청 투자유치기획과장은 "이번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이



전보다 훨씬 개선된 모습으로 외국인 이용객들을 맞을 수 있게 됐다"며 "IFEZ글로벌센터가 앞으로 명실공히 정주 외국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남/기자



# 부산 복구,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 열정 메타버스로 이어가

부산 복구는 4월 5일부터 '메타버스 in 복구 2030'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복구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응원 열기를 이어가고자 가상 세계를 통해 세계박람회에 대한 각종 정보를 안내하고 복구만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in 복구 2030'를 구축해 운영한다.

'메타버스 in 복구 2030'은 사용자들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성공한 2030년 부산의 미래 모습을 여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테마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세계박람회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최신 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관'과 복구의 현재와 미래를 소통 캐릭터인 '뿌꾸'·'꾸미'와 함께 여행 할 수 있는 '복구 2030 월드맵'은 사용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구는 세계박람회 유치가 결정되는 11월까지 신속한 업데이트를 통해 시각각 변화하는 모습을 '메타버스 in 복구 2030'에 구현할 예정이다.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메타버스 in 복구 2030'에 접속할 수 있으며 모바일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다. 다만 '메타버스 in 복구 2030'을 원활하게 즐기 위해서는 PC는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를 모바일은 공식 앱(APP) 사용을 권장한다.

오태원 구청장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복구와 부산,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바꾸는 기회"라면서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해 복구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송중진/기자



# 영주시, 제1회 추경예산 1조493억원 편성,의회 제출

당초 대비 993억원 증액(10.45% ↑)·인구감소 대응·문화관광 등

주요현안사업 추진 중점



경북 영주시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조493억 원을 편성해 4일 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992억 8천만원 증액된 1조492억8천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45% 증가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526억 7천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966억 1천만 원을 차지한다.

주요 내용은 민선8기 공약사업과 인구감소 대응 및 문화관광 등 주요현안사업,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예산 반영이다.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사마초 건립사업 9억82백만원 △소백산케이블카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1억원 등을 편성했다.

주요 역점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인구활력센터 조성 40억원 △원당천 힐링산책로 조성사업 25억원 △영주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57억원 △영주시 야간경관 계획 수립용역 3억원 △베어링산업 제조지원 기반 구축 사업 16억원 △서천 스윙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억원 등을 반영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민선8기 공약사항 이행과 영주시 미래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재원을 적극적으로 투입했다"며, "원활한 예산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회와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제27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확정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 통영시, 농수산물 수출 우수 시·군 평가 수상분야에서 유일하게 "우수상"수상

## 4월 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27회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탑 시상식 개최

통영시는 4월 3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27회 경상남도 농수산물 수출탑 시상식'에서 농수산물 수출 우수 시·군 중 수상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했다.

경상남도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출촉진대책수립, 수출실적, 수출신장률, 해외시장개척활동 등의 분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농수산물 수출 우수 시·군을 선정했으며, 통영시는 수출실적과 수출시책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분야에서는 유일하게 '우수상'을 수상했다.

통영시는 매년 수산물 수출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 수출 수산물 생산·가공을 위한 기자재 구입 설치비 지원, 수산물 개발비 지원 및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상담회, 해외 수산물 박람회

회 참여 지원 등의 수출 확대 및 활로 개척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어려운 수출여건 속에서도 수산업 종사자들과 수산물 수출기업의 노력이 있어 오늘과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수산 1번지 통영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하여 수산물 수출 활로 개척에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 확대에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수산물 수출탑과 관련 수산물 분야에는 천연조미료를 생산 수출하고 있는 빅마마씨푸드(주)에서 50만불 수출탑을, 농산물분야에는 딸기 재배 능가 여문환, 여영환씨가 10만불 수출탑을 수상했다.

이용준/기자



# 울진대계 '국가브랜드 대상' 7년 연속 수상

울진군 울진대계가 지난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국가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농수축산물 브랜드 부문에서 7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가브랜드대상 선정위원회가 주관하는 국가브랜드 대상은 대한민국 지역·문화·산업 분야의 우수한 브랜드를 더욱 발전시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인지도, 만족도, 충성도, 경쟁력 등을 평가 분석한 결과 울진대계가 농수축산물 브랜드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울진군은 오랜 역사와 풍부한 자연환경을 가진 지역으로, 울진대계를 비롯한 다양한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이번 수상을 통해 다시 한번 지역의 수산물이 국내에서 인정받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

특히 울진군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협, 어민, 생산·유통단체와 유기적

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온라인 홍보, 판촉행사 등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7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전국 최초로 연안어업인들이 스스로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해 위판량 제한, TAC제도(총허용어획량 : 개별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와 연안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생분해성 어망보급' 전국 최초 시범사업 실시 등 울진대계 자원을 보호해 지속가능한 어업을 정착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국가브랜드 대상에서 수상한 울진대계를 비롯한 울진군의 수산물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울진대계를 울진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자원의 지속적 관리와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 청도도서관, 청도 북스타트 '책날개' 입학식 개최

청도 어린이! 생각에 날개를 달다!



청도도서관은 4일, 청도초등학교 강당에서 청도 관내 초등학교 10개교 1학년 117명과 청도교육지원청 이동재 교육장 및 학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4년 만에 '2023 청도 북스타트 책날개 입학식'을 개최했다.

북스타트 '책날개' 입학식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입학 축하하고, 새로운 학교생활을 책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책날개 꾸러미를 선물하여 자연스럽게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성장하도록 돕는 독서 문화 운동으로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이 후원한다. 청도도서관은 2011년부터 북스타트 사업을 운영해 왔고 아기들을 위한 북스타트 운동을 시작으로 현재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책날개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책날개 입학식은 북스타트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격려사, 1학년 선생님들의 책날개 교사 독서 서약, 책날개 꾸러미 선물 그리고 동화구연과 축하공연 순으로 마무리 되었다. 책날개 꾸러미는 그림책 2권, 학부모를 위한 책날개 가이드북, 청도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방법과 전자책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문 그리고 책날개 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그림책 <손네에게> 동화구연과 어린이 뮤지컬 <책 먹는 여우> 축하공연은 어린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동화구연과 뮤지컬 공연에 푹 빠져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아이들은 책날개 입학식이 모두 끝난 후 책날개 꾸러미를 들고 학교로 돌아갔다.

그리고 청도도서관은 북스타트 연계 프로그램인 '책기움'을 각 학교별로 신청 받아 4월 중 6개교 1학년 94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5월에는 그림책 작가 초청 특강을 운영한다. 또, 4월 한 달 동안 청도도서관 로비와 어린이자료실에서 북스타트 책날개 도서를 전시한다.

서경희 관장은 "책날개 입학식의 핵심은 그림책을 선물해 입학을 축하하고 책과 함께 즐겁게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이 책과 함께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란다"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윤근수/기자

# 영천시, 4월 정례회 맞아 직원 친절 교육 실시

영천시는 4일, 시민회관에서 직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절교육 전문강사를 초청해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원 친절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의무 조치들이 하나 둘 해제되면서, 대면행정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신규공무원 임용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에서는 공공기관 서비스 트렌드 변화의 이해, 시민중심 행정을 위한 자중심적사고 전환의 필요성, 친절한 전화민원 응대 방법, 민원서비스 친절·불친절 사례 등 다양한 내용을 직원들에게 제공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직원들을 위한 지속적인 친절 교육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향상된 행정·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 영양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표창 수상

- 영양군, 전국 306개 기관중 군부 1위, 특별교부세 1억 5천만원 확보
- 오도창 군수, "군민들에게 감동적 서비스경험 제공 더욱 노력하겠다"



영양군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식에 오도창 군수를 대신해서 박준로

부군수가 참석하여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 5천만원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영양군은 전국 306개 기관을 대

으로 실시된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국민신문고 민원온도답, 24시 AI통화비서 서비스 운영 등 영양군 만의 특수시책으로 높은 점수 획득해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중 군부 1위의 영예를 안았다. 2021년도에 이어 2022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최고 등급(가)을 받은 영양군은 인근 시·군 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의 문의전화를 꾸준히 받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민원행정 전반에 대한 체계화 된 평가지표로 행해지는 만큼 수준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군민들에게 감동적 서비스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상북도 보훈단체협의회, 봉화군 충혼탑 합동 참배

## 박현국 봉화군수, "국가유공자와 유족들 노후위한 복지사회 구현에 최선"

경상북도 보훈단체협의회는 지난 4일, 봉화군 호국공원 내 충혼탑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참배 행사를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현국 봉화군수, 김상희 봉화군의회 의장, 경북보훈단체협의회 회원, 봉화군 보훈단체장, 김법수 경북북보훈지청장 및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헌화 및 분향, 묵념 등의 순으로 경건하게 진행됐다. 경북 보훈단체협의회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그 뜻을 가슴에 새기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부터 경북 23개 시군을 순회하며 충혼탑 참배 행사를 하고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나라와 거래를 위해 신명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함께 기릴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나라를 지켜왔다



는 자긍심과 보람 속에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복지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

정금자/기자

# 청송군, 청송사랑화폐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 청송사랑화폐 일제점검 단속기간 운영(4월4~4월 17일까지)
- 윤경희 군수, "지역경기 활력위해 청송사랑화폐 건전 유통질서 확립돼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사랑화폐를 실천에 옮긴 청송군이 이번에는 청송사랑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청송군은 청송사랑화폐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4월 4일부터 17일까지 상반기 일제점검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10% 상시할인 행사와 정책수당(농어민수당, 태배비 지원) 등으로 청송사랑화폐 발행 및 유통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1개반 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청송사랑화폐 시스템 운영업체와 판매대행점 관계자들과 협업하여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이와 함께 부정유통관련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가맹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

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시정·권고 ▲가맹점 등록취소·정지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특히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사랑화폐 발행으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먼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으로, 군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예천군, 제2회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개최 '안전사고 제로'

- 2023 저수령 그라운드, KBS전국노래자랑 안전관리계획 심의
- 이규삼 부군수, "축제의 성공은 관람객 안전 최우선"돼야

예천군은 지난 4일 오후 4시, 군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안전관리 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순간 최대 관람객 1천명 이상의 지역축제·행사 등 안전한 개최를 위해 관련 부서 공무원을 비롯한 소방서, 경찰서, 전기공사 등 유관기관 안전 전문가로 구성해 분야별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심의하고 문제점 등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개최된다. 이에 군은 오는 8일 개최되는 '2023 저수령 그라운드'와 15일 'KBS 전국노래자랑' 안전관리 계획 심의를 했으며 사전에 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을 직접 점검하는 등 안전사고 제로를 위해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규삼 부군수는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민들을 비롯한



관람객들의 안전이 최우선시되어야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 영덕군, 제26회 영덕대게축제 평가보고회 개최

- 지역 관광 활성화 효과 톡톡, 주민 참여와 안전관리 운영 호평
- 김광열 군수, "제시된 의견, 밑알이 돼, 만족도 높은 축제 태도록 최선"

영덕군은 지난 3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김광열 영덕군수를 비롯한 관련 부서장과 영덕대게축제추진위원회, 영덕군 축제심의위원회, 영덕문화관광재단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삼사해상공원에서 열린 제26회 영덕대게축제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엔 용역을 맡은 대구대산학협력단의 평가조사 보고와 개선안 발굴을 위한 질의·응답 및 총평 등 3시간의 성과 공유와 개선 방향이 논의됐다. 평가 용역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4년 만의 오프라인 개최와 장소 변경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3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아 1인당 9만원 가량을 지출하고 직접적인 경제효과만 28억원에 달한 것으로 분석돼 지역 관광과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문화된 축제 전담 조직의 운영과 늦겨울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한 에어돔 설치, 먹거리 부스의 효과적인 배치와 운영 등은 높은 공간 활용도로 방문객의 편의와 즐거움을 배가해 호평을 받았다. 또한 대게탈 추구, 대게 줄다리기 등의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점, 주요 축제 장소인 삼사해상공원 외에도 강구항과 축산 등 관광객들이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공간에서 축제를 폭넓게



즐길 수 있었던 점은 지역 전체를 활용해 테마형 관광을 실현했다는 평가다.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영덕경찰서와 소방서, 모범안전연합회 영덕군지회 등 관련 기관과 단체의 유기적인 협조로 즉시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면서 어느 때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대게를 소재로 한 다양한 가공품이 부족한 점, 축제와 연계한 할인 관광상품이 미제공된 점, 친환경 축제 구현을 위한 다회용기 사용이 미진한 점, 자원봉사자들의 축제 참여도가 낮은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엔 연중 축제를 홍보하는 방안과 삼사해상공원 야외 공연장을 활용한 어린이 놀이기구 및

주자공간 확대 등 축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영덕군과 축제추진위, 그리고 문화관광재단 등의 각 주체는 이날 나온 의견들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영덕대게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도약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영덕 대표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응원해 주신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나온 의견이 더 나은 축제를 위한 밑알이 되어 해를 거듭할수록 만족도 높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 의성군, 디지털 영마이스터 업무 협약 체결

## 김주수 의성군수, "디지털 인재 양성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의성군은 지난 4일,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에서 경상북도, 경북소프트웨어고등학교, (주)KT, 한국인공지능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 영마이스터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디지털 전환 요구에 맞춰 AI와 메타버스를 연계한 교육 과정을 선제적으로 개발하여 디지털 기술에 대한 지식 습득과 기술 활용 등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학생들의 디지털 실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체결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AI·메타버스 등 디지털 분야 교육과정 개발 및 제공 협력 ▲(주)케이티 그룹사 및 협력사, 한국인공지능협회 회원사의 채용 정보 공유 및 인재 추천 ▲AI·메타버스 등 디지털 분야 자격증 취득 지원 ▲기업 현장 견학 및 디지털 분야 전문가 특강 제공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의성군은 디지털 인재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과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적

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특히 교육경비 공모사업 등 학교에 특화된 사업지원을 통해 인재양성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군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이번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학교, 기업이 힘을 모아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 경북도, 가치를 마시고, 경험을 나누다' 호피 홀리데이' 수제맥주 핫플로 주목

## 경북도 이웃사촌시범마을 대표적 청년 창업 성공 사례

수제맥주의 성지 호피 홀리데이(대표 김예지)가 청년 창업의 모범사례이자 맥주 애호가들의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호피 홀리데이는 2020년 6월 의성군 안계면에서 이웃사촌시범마을 내 청년 점포 중 가장 먼저 문을 열었다.

낮에는 동호인 일반인을 위한 원데이 클래스, 지역농산물 활용 양조 등 수제맥주 공방으로 운영하고, 해질 무렵부터는 지역민과 청년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인 수제맥주 펍으로 운영하고 있다.

호피 홀리데이 김예지 대표는 대구에서 자라 서울의 중견기업을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어느 직장인처럼 막연히 창업을 꿈꾸고, 아이템은 자신이 좋아하는 수제 맥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중 의성에서 홉농장을 운영하는 '홉이든' 부부를 만

나면서 의성에서 창업을 결심하게 됐다고 한다.

호피 홀리데이는 창업 후 인정한 홉이든 농장에서 신선한 홉을 제공받아 안계쌀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제 맥주 공방 및 양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개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금세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지금은 경북을 넘어 전국의 수제맥주 마니아들이 모여들고 있다.

또 수제 맥주 브랜드를 론칭해 제작·판매하고 있다. 건조 홉을 쓰는 여느 양조장과 달리, 생홉을 사용한 게 특징이다.

전국 펍들과 네트워크를 맺고 의성 맥주를 공급하고 있는데 '의성라거', '쇼미더홉', '안계평야'는 출시되자마자 완판돼 전국에서 추가 발주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호피 홀리데이는 이러한 인기를 바



탕으로 창업 후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말 기준 연매출 2억원을 달성했다. 호피 홀리데이 김예지 대표는 "호피 홀리데이를 운영하며 온전히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삶,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만족을 얻게 되어 힘드

는 줄도 모르고 지내고 있다"면서, "경북 의성에서 꿈을 이뤄 기쁘고, 이제 새로운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김예지 대표의 다음 목표는 호피 홀리데이를 성공한 청년 창업 가게를 넘어 가장 한국적인 수제맥주 양조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순수 국산 재료로 세계에 통하는 맥주 레시피를 꾸준히 개발해 전 세계로 진출할 계획이다.

박성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우수한 아이템이면 얼마든지 지방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지방에 정착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경북에서 새로운 도전을 펼칠 것을 적극 권한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안동시, 도 지정문화재 4건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추진 '정밀 조사 연구용역 착수'

## 광흥사, 서악사, 봉황사, 대원사 소장 불교조각 2건, 불교회화 2건

안동시는 안동시 소재 경북 지정문화재 가운데 불교 조각 2건과 불교회화 2건을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하기 위한 정밀 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정밀 조사 대상 문화재는 유형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먼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안동 광흥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시왕상과 ▲안동 서악사 목조아미타삼존상과 2존상과 북장유물 일괄이다. 다음으로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안동 봉황사 삼세불화와 ▲대원사 소장 불화 일괄이다.

안동 광흥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시왕상은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재봉리에 소재한 대한불교조계종 광흥사에 소장된 불상이다. 목조로 된 지장보살을 주존으로 도명존자와 무독귀왕이 삼존을 이루고 있다. 이외 총 10구의 시왕상과 판관, 사자, 귀왕, 인왕상들로 구성되어 있다. 불상에서 발견한 조성 발원문에 의하면 본 명부전은 수조각승 단응(端應)을 비롯하여 탁밀(卓密) 등 15명의 조각승들이 1692년 조성한 것이다.

안동 서악사 목조아미타여삼존상

은 경북 안동시 태화동에 소재한 대한불교조계종 서악사에 소장된 불상으로 아미타여좌좌상을 기준으로 좌우 입상의 두 보살상이 협시한 구성으로 주존 불과 두 협시보살의 인상, 신체비례, 옷 표현등을 통해 함께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삼존상은 목조 제작으로 추정되며 아미타불상에서 발견한 발원문을 통하여 1567년에 조성됐다.

안동 봉황사 삼세불화는 경북 안동시 임동면 소재 대한불교조계종 안동 봉황사에 소장된 불화이다. 보물 안동 봉황사 대웅전 후불탱화로서 재질은 바탕 삼베에 채색한 것으로 일부 비단이 사용되었다. 크기는 가로 240·280cm 정도이며 세로는 380·390cm 정도이다. 석가모니불과 아미타불, 약사불의 회상을 그린 삼세불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약사회상도의 화기(書記)에 의해, 1725년의 조성연대를 명확히 알 수 있고 화면 속 주존의 이목구비, 특징적 세부 묘사와 함께 화사한 채색 등이 조선시대 삼세불화 연구에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작품이다.

안동 대원사 소장 탱화는 경북 안동시 목성동 소재 대한불교조계종 안동 대원사 소장 불화로 불화구성은 후불탱화, 신중탱화, 지장탱화로 구성됐다. 전형적인 조선 후기 탱화로서 짜임새 있는 구도와 적록의 화려한 색상 조화, 필치가 세련되어 예술적 조형미가 돋보인다. 또한 3폭의 불화 모두 화기(書記)를 통하여 한 맥락의 화원 집단이 동일시기에 공동 제작한 것으로 조성 시기와 지역을 대표하는 화풍과 화사집단 활동사향 연구에 사료적 가치가 크다.

이번 정밀조사용역은 대상문화재 현황조사를 통해 학술 부분, 보존관리 이력 등과 불상/불화의 과학적 조사가 진행된다. 또 2013년 발견된 안동 광흥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시왕상의 북장유물을 국가지정문화



재로 지정하기 위해 목록화/탈초·해제가 이뤄진다. 그동안 북장유 물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밀조사용역을 통해 다양한 정보가 밝혀질 것이라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시는 조선시대 유교 문화가 꽃피운 도시이지만, 불교문화가 공존하며 상생 하던 곳이다"며 "과거 안동에서 조성된 불교조각과 불교회화는 불교미술·종교신앙·종교민속·서지학 등 분야에서 그 가치가 크므로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을 전했다.

윤근수/기자

# 옛 경주역, MZ세대 발길 잡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

- 지난해 12월 옛 경주역이 '경주문화관1918'로 탈바꿈
- 1918콘서트, 플라마켓, 유명 미술작품 전시, 문화창작소 프로그램 등 운영
- 문화공간 제고와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도심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대

옛 경주역이 '경주문화관1918'로 개관 후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 옛 경주역 광장의 아스팔트를 벗고 푸르른 잔디밭으로 탈바꿈해 분위기도 전환했다.

시는 접근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가진 옛 경주역을 문화플랫폼으로 활용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올해 활용계획은 ▲1918 콘서트(정기공연) ▲아트&마켓1918(문화광장) ▲유명 미술가레플리카 (그림·조각 원작자가 직접 만든 사본) 전시(미술전시) ▲무료대관 ▲문화창작소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1918콘서트는 대중공연으로 경주역 북업을 위해 오는 7일 '로이킴과 신현희' 편을 시작으로 5월 20일 '소란', 6월 10일 'KCM&원슈타인' 등 8월까지 총 5회 미니 콘서트를 펼치며, 아트 &마켓1918은 이달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지역 노래·댄스·미술 등 공연단체를 초대, 버스킹 공연을 비롯 거리예술로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동시에 만들협동조합, 향우 등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등과 협업,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핸드메이드 플라마켓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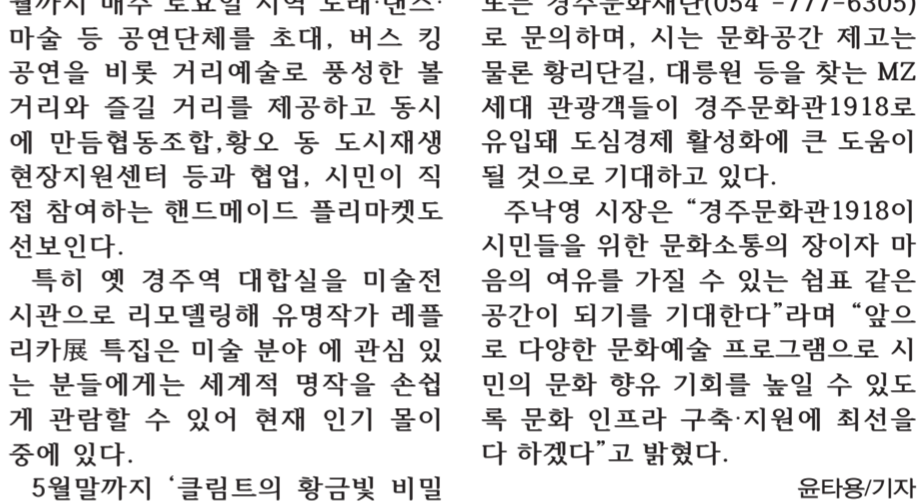
전'이 있고, 8월까지 '꺼지지 않는 예술촌 대항 이중섭전'을 개최한다. 더불어 6월 23일까지 수시대관 신청 접수도 진행된다. 시민이면 누구나 생활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역광장, 공유오피스, 3D워크스페이스, 창작스튜디오 녹음·촬영실로 구성돼 있으며, 빔프로젝터, 음향시스템, 녹음·촬영 장비 등 기자재도 구비돼 있다.

이외에도 시민들과 예술인들이 문화유산을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창작 활동과 문화상품 제작 기회 제공을 위해 문화창작소 교육 프로그램도 12월까지 4회차 과정으로 운영된다. 이달에는 ▲3D프린터 기초 클래스 ▲스마트폰 촬영법과 홍보&마케팅 기법 ▲브랜드 '키워드' 찾기 등으로 제5차 법정문화도시 지정에 전결음을 이어가고 있다.

경주문화관1918 프로그램 운영 자체한 사항은 경주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경주문화재단(054-777-6305)로 문의하며, 시는 문화공간 제고는 물론 향리단길, 대룡인 등을 찾는 MZ세대 관광객들이 경주문화관1918로 유입돼 도심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문화관1918이 시민들을 위한 문화소통의 장이자 마을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대표 같은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문화 인프라 구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타용/기자



특히 옛 경주역 대합실을 미술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해 유명작가 레플리카를 특집은 미술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세계적 명작을 손쉽게 관람할 수 있어 현재 인기 물이 중에 있다.

5월말까지 '클림트의 황금빛 비밀

# K트롯 대구의 맛! 경부고속도로 타고 서울로! 대구 10미(味)! 팔공산, 비슬산 넘어 전국으로 GO! GO!

-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 연내 모든 휴게소 대구 10미 판매 확대 추진
- 대경 지역 대구 10미 판매 휴게소(16개소) '대구의 맛' 음원 송출
- 용인 죽전 휴게소 대구 파로국밥 인기! 대구 10미 브랜드 가치 상승

지난해 9월, 대구 음식의 매력을 알리고 대구 10미(味)의 브랜드화를 위해 만든 K트롯 '대구의 맛'이 칠곡휴게소 등 대구·경북을 넘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마지막 휴게소인 용인 죽전 휴게소(서울 방향)에서 들을 수 있고, 대구·경북의 모든 대구 10미(味) 판매 휴게소(16개소)에서 울려 퍼지게 된다.

또한 대구광역시와 한국도로공사(대구 경북 본부)와 상생 협력 차원에서 올해 안으로 대구·경북의 모든 휴게소(32개)에 대구 10미(味)가 판매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위생정책과)와 한국도로공사(대구경북지역본부)가 휴게소 음식의 지역적 특화와 대구 10미(味)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이는 취지에서 맺은 업무협약(2021년 10월)이 '대구 10미(味) 전국 브랜드화'와 '고속도로 먹거리 특화 서비스'라는 상생 시너지를 창출하며 긍정적 파급효과가 더욱 커지고 있다.

▲먼저, 대구 10미(味)의 '전국 브랜드화'이다.

전국적으로 막창이나 파로국밥, 납작만두 등이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대구 음식'이라는 점을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데는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3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칠곡휴게소(서울 방향) 등 16개 휴게소에서 대구 파로국밥을 비롯한 대구 10미(味)를 판매하자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입소문을 타면서 '대구 10미(味)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됐다.

특히 경부고속도로(서울 방향) 마지막 휴게소인 용인 죽전휴게소에서 판매하는 대구 파로국밥은 단품뿐만 아니라 용인 특산물인 '영양밥'과 같이 세트 메뉴로 만들어져 대구 10미(味)의 전국적인 확산성에 기대를 걸 수 있게 되었다.

▲둘째, K트롯 '대구의 맛'의 홍보 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9월, 대구 음식이 맵고 짜다'라는 근거 없는 잘못된 선입견을 불식시키고 대구 10미(味)의 전국적 브랜드화를 위해 납작만두, 찹갈비, 몽티기 등 대구 10미(味) 음식의 이름을 모티브로 해 '변하지 않고 잊을 수 없는 대구의 음식'을 표현하는 대중가요인 '대구의 맛'을 제작했다.

대구 음식 특유의 화끈한 맛을 빠른 세미 트로트 풍의 멜로디 라인으로 표현한 K트롯 '대구의 맛'은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특성과 절묘하게 잘 어울려 칠곡휴게소(서울방향)와 용인 죽전휴게소를 비롯한, 현재 전국 17개 휴게소에서 현재 울려 퍼지고 있는데 향후 '대구 10미(味)'를 판매하는 전 휴게소에서 음원이 송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 대구의 '음식 콘텐츠'와 한국도로공사의 '플랫폼'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위생정책과)는 대구 10

미(味)의 브랜드와 K트롯 '대구의 맛'을 알릴 플랫폼이 필요했고, 한국도로공사(대경본부)는 휴게소별 대표 음식과 지역 특화 서비스가 필요했다. 양 기관의 이러한 니즈(needs)와 월츠(wants)가 만들어 낸 시너지는 특별한 홍보비가 필요 없을 정도로 효과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사회·환경적 활동까지 고려해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업 성과지표인 'ESG' 경영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한국도로공사의 '대구10미(味)와 K트롯 대구의 맛'을 활용한 휴게소 특화 사업은 지역과 고객을 위한 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ESG 경영의 모범 사례로 손꼽힐만 하다.

▲마지막으로, 대구의 음식을 제대로 알릴 기회를 잡았다.

휴게소 플랫폼을 통해 '대구 10미(味)와 K트롯 대구의 맛'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다던 대구에 와서 직접 먹어봐야 그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용인죽전 휴게소 하이샷 대표님



김종한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과 전형석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장은 지난 3월 31일(금), 대구광역시청(동인 청사) 업무 미팅에서 현행 16개소인 대구 10미(味) 판매 휴게소를 연내 32개소로 확대하고, 'K트롯 대구의 맛' 음원 송출도 대구 10미(味)를 판매하는 전 휴게소에 송출하기로 하는 등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관내 휴게소에서 '1휴게소-1 대구 10미(味)-1 특화 서비스'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그뿐만 아니라 죽전 휴게소 외에도 수도권 등 타 지역의 휴게소에서도 대구 10미(味) 판매가 확대되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김종한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3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속도로 휴게소도 매출 및 이용객 감소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어려운 시기를 한국도로공사(대경본부)가 대구 10미(味) 브랜드와 K트롯 '대구의 맛' 음악 콘텐츠를 그 수익 개선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큰 감동을 받았고, 대구 10미(味)를 비롯한 대구 음식의 가치가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전남도, 함평 산불 3단계...4일 주불 진화목표

## 진화헬기 11대·인력 988명 순차 투입...순천도 진화 총력

전라남도는 4일 함평 신광면 신광중학교 인근에 마련한 현장통합 지휘본부에서 산불 진화 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함평 산불은 지난 3일 오후 1시께 대동면 한 야산에서 발생해 건조한 날씨와 바람 때문에 소나무 임지로 불길이 확산하면서 이날 저녁 10시 50분께 산불 대응 단계가 3단계로 격상됐다. 4일 오전 현재 진화율은 60%다.

전남도와 함평군, 산림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선 산불 발생 진화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진화 계획 등을 논의했다.

전남도는 3일 산불 발생이 발생하자 산불제난특수진화대 등 653명의 인력을 투입해 발생 진화작업을 펼쳤으며 학교, 주택 등 민가 피해가 없도록 방화선 구축에 온힘을 기울였다.

함평 산불 피해 영향구역은 382ha로 추정된다. 남은 산불 길이는 7.4km로 대부분 진화대원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비닐하우스 2동, 축사 1동, 공장 4동 등의 시설이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 43명은 근처 마을 경로당 등에 분산 대피했다.

김영록 지사는 "오전 6시 16분 일출과 동시에 헬기 11대와 진화 인력 988명을 순차적으로 투입하고 있다"며 "오전 중 주불 진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일 오후 1시께 순천 송광면 봉산리 산179-3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진화헬기 8대, 진화차·소방차 48대, 진화인력 417명을 투입했다. 송광사와 민가, 태양광 시설 등을 중심으로 방화선 구축 등 총력 진화로 현재 시설



과 민가 피해는 없다. 송광면 산불 영향권 범위는 127ha로 4일 오전 5시 산불 대응 3단계로 격상됐으며 순천시 산불지휘본부는 9시 현재 진화율은 60%라고 밝혔다. 정해명/기자

## 광주광역시, 청년 금융부채 해결 촘촘히 살핀다

광주광역시시는 취업난과 교육·생활비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청년금융부채 문제를 보다 촘촘히 살피기 위해 '광주청년드림은행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광주청년드림은행'은 광주시가 지난 2018년부터 청년금융부채 문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문가와 1대 1 심층 재무관리상담을 통해 각자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신용회복기관과 동행 지원 및 경제교육 등을 실시해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그 동안 이 사업을 통해 광주청년 약 1800여명의 금융부채 상담을 했고, 이 중 600여명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했다.

특히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지난해 상담에 참여한 3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담 만족도는 5점 만점에서 평균 4.9점이었다. 상담 전 3.35점(10점 만점)이던 경제적 자존감지수는 상담 후 7.23점으로 크게 향상돼 청년 금융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올해부터 재무관리상담 완료자 중 심사를 통해 지원하는 연체해소지원금 규모를 지난해 175명에서 200명으로 확대하고, 1인당 지원금도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5% 상향해 지급한다.

특히 금융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상담 제도'를 신설, 운영한다.

광주청년드림은행은 금융부채 문제로 고민하는 만 19~39세의 광주청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복귀 중흥동맹주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평일 업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예약자에 한해 화·수·일 오후 10시까지 야간상담소를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광주청년정책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현 청년정책관은 "금융부채 문제로 고민하는 광주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역 미취업 청년들의 다양한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광주 청년드림수당 및 활동지원 사업', 무주택 청년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청년맞춤형 임차보증금이자 지원사업'을 함께 시행하고 있다.

김병수/기자

광주광역시 청년드림은행

금융상담, 재무상담, 신용회복, 경제교육

청년드림은행

세종로 100번길 100 (광주) 02-220-2000

## 나주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 베트남 국적 75명 환영 행사

### 영농철 앞두고 농촌 인력난 해소 기대... 4월 말까지 240여명 농가 투입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보탬이 될 나주시외국인 계절 근로자 75명이 4일 입국했다.

모두 베트남(비탄시) 국적으로 지난해 12월 나주시와 베트남 비탄시 간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공식적인 첫 인력 교류가 이뤄졌다.

이들에 이어 4월 말까지 베트남 비탄시 근로자 50여명이 추가로 입국할 예정이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이날 오후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계절 근로자 75명과 인솔 담당자, 주한베트남대사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외국인 근로자 입국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환영 인사와 격려사, 기념 촬영에 이어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

을 위한 근로 준수사항 및 인권 보호, 한국 문화 교육 등이 진행됐다.

이날 사전 신청 농가에 배정된 근로자들은 비자(B-8) 체류 기간인 5개월간 농촌 일손에 힘을 보태 예정이다. 근로자들은 산재보험 또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과 외국인 등록 절차를 거친다. 근로 성과가 좋으면 재추천을 통해 다시 계절근로자로 입국할 수 있다.

시는 4월 한 달 간 베트남 출신 결혼 이민자들을 채용해 근로자들의 한국 문화 적응을 돕는다. 또 특별 점검 기간을 운영, 숙식 및 근로 여건을 꼼꼼히 살피고 무단 이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풍부한 영농 경험과 성실함을 겸비한 베트남 근로자들이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국내 선

진 농업기술 습득과 인권 보호, 소득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속가능한 인력 교류를 도모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법무부로부터 상반기 외국인 근로자 205명을 배정받았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2023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나주 배원농협이 선정되면서 베트남 국적 근로자 50명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날 입국한 75명과 더불어 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방식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70명이 앞서 농가에 투입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45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을 완료했다.

오는 4월까지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더해 총 240여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입국을 마치고 나주시외 농가에 활력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민/기자



## 완도군, 올봄, 치유 정원 청산도로 오세요!

### 4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 한 달간 슬로걷기 축제 개최

전남 완도군은 4월 8일부터 5월 7일까지 청산도 일원에서 '봄봄봄 치유 정원, 청산도로 오라'는 주제로 2023 청산도 슬로걷기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관광객들이 유채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슬로시티 청산도에서 느리게 걸으며 봄과 여유를 만끽하고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주요 행사로는 환경을 보호하고 쓰레기 버리기를 최소화하는 취지의 '청산도 플로깅'과 슬로길 11개 코스를 걷는 스탬프 투어 '청산 완보', 청산도 주민들과 걸으며 구석구석 이야기를 듣는 '청산도에서 걸으리랏다' 등이 운영된다.

또한 별 헤는 밤 청산도 야간 버스투어, 청산도 달팽이를 찾아라, 청산도 의자 정원, 청산도의 시선, 옛 사진 전시관, 다양한 공연 등이 마련됐다. 이 밖에도 완도군의 젊은 작가들

이 참여하는 청산도 원데이 클래스는 청산도 여행 스케치, 황칠 원예 체험, 청산도 마그넷 만들기 등을 진행한다.

특히 청산 해양치유 공원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 축제 기간 내내 노르딕 워킹 체험과 소리, 향기, 해조류, 족욕, 허브 맥반석 등 치유 시설을 예약자에 한 해 무료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축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청 홈페이지, 관광과 공식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주민들이 출연하는 유튜브 '청산도에 와보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청산도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푸른 바다, 산, 구들장 논, 돌담장, 해녀 등 그림의 풍경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곳으로 2007년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되며 세계가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아름다운 풍경에 취해 절로 발걸



음이 내려진다 하여 이름 붙여진 슬로길은 전체 11코스, 42.195km에 이르며,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이야기가 있는 생태 탐방로 선정, 2011년 국제슬로시티연맹 공식 인증 '세계 슬로길 1호'로 지정됐다. 박재원/기자

## 장흥군, 다문화가정에 '희망가꾸기 41호' 새집 선물

### 희망가꾸기 41호, 중앙로타리클럽 '사랑의 집짓기 14호' 준공

장흥군과 4곳의 기관·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지역 다문화가정에 따뜻한 새집을 선물했다.

4일 열린 준공식에는 김성 장흥군수, 왕윤채 장흥군의회 의장, 이재대 국제로타리3610지구 총재, 김동국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신성일 장흥중앙로타리클럽 회장 등이 참석했다.

새집을 선물 받은 가정은 거주할 곳이 없어 마을회관2층을 임대생활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이다.

지난해 12월 장흥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은 사례관리를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다문화가정의 어려운 사정을 처음 접했다.

이후 장흥중앙로타리클럽에 지원을 요청하자 회원들은 3,000만원의 성금을 모금했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택매칭그랜트지원사업으로 3,000만원을 확보했으며, 부족한 사업비는 로타리의 건축 재능기부를 약속하면서 주택신축이 추진됐다.

장흥지역건축사회 문건축사에서 건축설계 및 인허가를 지원받아 지난 12월부터 신축을 추진해 4.4일 21평의 주택이 완성됐다.

신축가구는 장흥군이 추진하는 희망가꾸기 41호다.

장흥군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가정에 복지재단과 후원자를 연계해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을 지원받게 된 대상자는 "오랫동안 집을 지을 수 없기를 소망해왔다. 내게도 이런 복이 올 줄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저희 가족이 따뜻하고 튼튼한 집에서 생활하게 됐다. 도와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감사를 전했다.

신일성 장흥중앙로타리클럽 회장은 "주택신축으로 어려운 이웃에 봉사하는 기회가 되어 기쁘다. 항상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로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동국 사무처장은 "모금회의 주택매칭그랜트 지원사업이 지역사회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힘이 되어주는 사랑의 열매가 되겠다"고 전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중앙로타리클럽,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신축에 도움주신 여러 기관·단체에 깊은 감사로 드린다. 장흥군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찾고,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원/기자



## 남원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워크숍 성황리에 개최

남원시는 지난 4월 3일부터 1박 2일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남 담양일원에서 직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문강사의 퍼실리테이션을 활용한 직무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통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역량강화 교육을 시작으로 2023년 자활사업 운영방안 및 정책환경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직원들의 정보공유와 현장 대응력 제고 및 유대강화로 상호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담양지역자활센터 청년자립도전단 '청출어람'과 오피드커피(비건 베이커리카페) 견학으로 지역자활센터간 협력 네트워크 제고는 물론 남원자활센터에 접목 가능한 신규사업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참석한 종사자는 "코로나19 소통과 협력의 자리를 마련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소통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확산과 삶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남원지역자활센터장은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애쓰며 직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자활센터가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자 발굴과 자활사업이 더욱 활성화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 영암군, 왕인문화축제기간 "한우소비촉진"총력

영암군은 '2023영암왕인문화축제'를 맞이하여 지난달 30일부터 4일간 한우고기 시식회와 할인판매를 실시, 관광객들의 큰 호응 속에 행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군, 영암축협, 한우협회뿐만 아니라 다수의 한우농가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한우 소비 촉진과 한우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사)전국한우협회 영암군지부는 한우등심 30kg, 한우볼고기 60kg 등을 내놓으며 무료 시식회를 열고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으로 행사의 만족도를 높였다.

영암축협은 축제장 내부의 농특산물 판매부스와 하나로마트를 통해 등심, 채끝, 불고기, 국거리 등 다양한 상품의 한우고기를 시중보다 최고 40~30% 할인된 가격에 판매, 총 5천 3백만원 가량의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다.

군은 지난 3월 한우협회 임원진과

특별 간담회를 추진하는 한편 최근 큰 폭으로 하락한 한우 도매가격에도 불구하고 소매점과 식당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한우 가격 하락세를 체감하기 어려워 한우고기 소비 침체가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남남도지회 영암군지부에 한우 가격 연동제에 따른 할인 행사 협조를 요청하는 등 관내 한우 농가 살리기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김성현/기자





# 전북도, 새만금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위한 범국민 홍보단 출범

## 범국민적 관심·자발적 참여로 성공적 개최 측면 지원

오는 8월 새만금일원에서 펼쳐질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인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위한 범국민 홍보단이 출범했다.

홍보단 출범식은 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라북도지사와 강태선(사)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권혁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장, 안규백 세계의원연맹 총재를 비롯한 여·야 약20여 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단 출범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범국민 홍보단은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강태선 총재와 여·야 20여 명의 국회의원을 명예 홍보단장·대사로 위촉해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제17회 세계잼버리를 강원도에서 개최한 후 이번 새만금에서 제25회 세계잼버리

를 두 번째로 개최하게 돼 세계잼버리를 2회 이상 개최하는 6개 국가 중 하나인 세계스카우트 회원국으로서 위상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범국민 홍보단 출범이 새만금 세계잼버리 범국민적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원동력이 될 것이다”며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청소년 축제를 넘어 온 국민의 축제가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에 권혁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장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개최를 위해 ‘다시 찾고 싶은 한국, ‘함께해요 우리, 함께하는 한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스카우트를 소개하고 참가자 추가모집 독려와 세계잼버리의 올바른 이해를



홍보단 출범식에서 김관영 전라북도지사가 “범국민 홍보단 출범이 새만금 세계잼버리 범국민적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원동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범국민 홍보단 조직을 독려하여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성공개최를 위한 제반 활동을 전개하고 D-10 콘서트 등을 추진하여 범국민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낼 예정이다.

이남출/기자

# 전주·완주, 관광경제 활성화·주민편의 사업 공동 추진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상생협력 사업이 상생의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 2월 4차 협약 후 한 달만에 3개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전북도와 전주시, 완주군은 4일 벚꽃이 만개한 완주군 대한민국 스테마 박물관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우범기 전주시장과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 5차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에 추진하기로 한 사업은 먼저 ‘에프투어(F-Tour) 연계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이다. 전주·완주의 대표적인 음식과 전통특산물(food), 관광체험자원(foot), 축제자원(festival), 농촌체험자원(farm) 등을 활용, 연계한 협력사업들을 함께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 협력사업은 (Food) 전주-완주 음식체험 및 미식투어 프로그램 운영, (Foot) 발품 여행가게진 트립플을 통한 테마형 발품투어 콘텐츠 공동 운영, (Festival) 전주-완주 간 축제 통합버스 운영 등 공동 축제(완-전축제) 운영, (Farm) 전주·완주 농촌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관광거점마을(농촌체험휴양마을) 연계 투어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주와 완주의 관광경제 활성화와 지역문화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두 번째는 ‘완주-전주 자전거 도로 확충’ 협력사업이다.

완주-전주 경계지역 및 연결 공동 구간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만경강에서 전주천까지 끊김 없고 안전한 자전거 도로망 구축을 통해 저탄소 녹색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최근 전주·완주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대중교통 운행요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협력’ 사업이다. 전주·완주 주민들의 이동권 보강과 대중교통 사각지대 및 벽·오지 지역의 효율적 시내버스 서비스 제공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향후 국토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공모사업

에도 양 시·군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주·완주의 공동 발전과 신뢰 구축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가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상생의 길이란 걸음씩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완주·전주 5차 상생협약을 통해 교통, 문화 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시군 경계에 국한되지 않고 양 시군 주민들의 실생활에 체감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하며, “아울러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협약된 사업들도 내실있게 관리함으로써 양 지역주민 편익과 공동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5차 상생협력사업이 봄을 맞아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채워져 의미를 더한다. 전주·완주 주민들뿐만 아니라 양 지역을 찾아주시는 관광객들이 더 풍부하게 전주와 완주를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전주·완주 주민 편익을 증진하고 양 지역을 이어줄 수 있는 교통 분야 사업을 상생협력사업으로 처음 다루게 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양 지역주민들의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친구가 있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공자님 말씀처럼, 전주와 완주가 언제나 반가운 친구를 맞이하듯 지속적으로 상생을 다짐하는 협약을 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승일/기자

# 해남군 군민의 날 기념“KBS 전국노래자랑”개최

해남군은 제50회 해남군민의 날을 기념해 4월 29일 군 신청사 앞 해남군민광장에서 KBS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한다.

KBS 간판 프로그램인 전국노래자랑이 해남을 다시찾은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만으로, 해남군은 올해 5월 1일 군민의 날을 전 군민이 참여하는 축하와 화합행사로 마련하고 있다.

KBS 전국노래자랑 해남편은 전국노래자랑의 새로운 MC 김진영과 김혜연, 김국환, 현당, 김다나, 김재룡(개그맨 김재욱) 등이 출연해 군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노래자랑의 주인공인 일반 출연자 예심 접수가 시작됐다.

예심참가는 기성가수를 제외한 군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4월 21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군청안내실을 직접 방문신청 또는 해남군 홈페이지 군정알리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다.

예심은 4월 27일 오후 1시 해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되며, 1·2차 예심을 통해 15명 내외로 본선 진출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2019년 이후 4년만에 해남에서 열릴 전국노래자랑이 코로나19로 피로감을 느끼는 군민에게 다시 활력을 제공하고, 군민 소통과 화합의 무대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더불어 인기 가수들의 등용문이 되고 있는 노래자랑에도 많이 참여해 재능과 끼를 펼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선애/기자

# 여수에 3년만에 크루즈 입항...올해 1천600명 전망

## 4일 실버위스퍼호 29개국 600여명, 해외 관광객 유치 기대감

전라남도도와 여수시는 4일 여수엑스포터미널에 미국 실버시(Silversea)사의 호화(럭셔리) 크루즈선 ‘실버위스퍼호(2만 8천톤급)’가 승객 329명, 승무원 285명 등 총 614명을 태우고 입항했다고 밝혔다.

2020년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3년 만에 여수로 들어온 이번 크루즈선의 승객은 미국, 영국, 호주, 멕시코 등 세계 29개국에서 온 관광객으로 구성됐다.

이날 입항을 시작으로 올 한해 크루즈를 통해 1천600여 명의 관광객이 전남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민선 8기 해외 관광객 300만 명 유치 목표 달성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전남도와 여수시, 여수광양항만공사, 전남지방해양수산청, 전남관광재단은 이날 코로나19 이후 크루즈 첫 입항을 기념해 여수엑스포터미널 부두에서 승객과 승무원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 환영 행사는 취타대 공연, 선내투어, 기념패 수여 등으로 운영됐다.

승객들은 기념행사 후 오동도, 순천만국가정원, 보성녹차밭, 선암사, 여수스카이라인 등 전남 동부권 주요 관광지로 구성된 5개 주요 관광지를 둘러본 후 이날 오후 일본 나가사키로 출항했다.

이번 크루즈 입항은 전남도와 여수



시가 지난해 4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씨트레이드 크루즈 글로벌’에 참가해 세계적 크루즈 선사인 로얄캐러비언 크루즈 자회사인 실버시사와 프랑스 포넌트(Ponant)사를 대상으로 기항지 설명회와 개별 면담을 통해 3항차 여수 기항을 유치한데 따른 것이다.

올해 전남도는 지난 3월 미국 포트 로더데일에서 개최한 ‘씨트레이드 크루즈 글로벌’에 참여해 기항지 설명회를 개최, 실버시사와 포넌트사의 2025년 추가 기항을 기대하고 있다.

또 전남의 아름다운 섬과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익스페디션 크루즈를 유치하기 위해 실버시, 포넌트, 호주 시닉(Scenic) 등 호화 익스페디션 크루즈선사들과 구체적 상품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익스페디션 크루즈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를 즐기는 최고급형 크루즈다.

조대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크루즈가 여수에 3년 만에 입항한 것을 환영한다”며 “기존 전통적 크루즈 기항은 물론 전남이 비교우위에 있는 해양 및 문화관광자원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익스페디션 크루즈로 해외 관광객 유치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올해 여수에는 실버위스퍼호를 포함해 총 3항차의 크루즈 입항이 예정돼 있다. 5월 21일 프랑스 포넌트사의 1만 900 톤급 레 소레알(Le Soleal)선이 승객 264명 승무원 145명을 태우고 입항할 예정이다. 10월엔 실버위스퍼호가 한 차례 더 입항할 계획이다.

정해명/기자

# 광주광역시, 민원서비스종합평가 ‘국무총리상’

## 사회적 약자 위한 아름다운 배려창구 운영 등



광주광역시는 ‘2022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시도 중 1위를 차지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광역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 등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장의 민원행정 성과, 민원만족도, 고충민원처리 노력도 등 19개 지표를 반영한다. 광주시는 민원서비스 우수성을 인정 받아 ‘가’ 등급을 받았다.

광주시는 편안하고 품격있는 민

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에 있던 칸막이를 없애 대기공간을 쾌적하게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아름다운 배려창구를 마련해 장애를 가진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행정음부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장기간 미해결 반복되는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관리·점검하며 시민, 관련기관, 공무원이 함께 민원인의 고충

을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수상으로 특별교부세 1억 2000만원을 확보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광주시 모든 공직자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전국 시도 중 가장 우수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만족도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 김제시,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총력, LH 공동협력 러브-콜

## 지속 가능한 일자리 연계형으로 지방 이주 대표모델 출시 예고



지난 4일, 윤우준 LH 전북지사장이 김제시를 방문하여 김제시 공영개발사업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간담회는 지역활력타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LH 공동참여 제안과, 백구 제2특장차단지 조성사업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국토부 등 7개 부처가 협업으로 해 처음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국비 지원, 인허가 특례, 컨설팅 등 각종 지원 혜택을 받아 주거·문화·일자리가 결합된 주거거점 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그간 파격적인 전입 장려정책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전국적인 인구 자연감소 현상 속에서도 이례적인 인구증가를 창출해낸 김제시는 금번 지역활력타운

공모에 사활을 걸고 대응 중이다.

특히, 김제시와 LH는 그간 ▲지평선산단內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120호) ▲백구투자선도지구內 지역전략산업 지원주택(100호) ▲지역수요 맞춤형주택(귀농귀촌주택 12호)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공공임대주택 30호) 등 일자리 연계형 주거복지 공모사업을 통해 긴밀한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 온 만큼, 금번 공모도 LH와 협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그간 축적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 풍부한 인적·물적 인프라와 LH의 전문성이 힘을 모아 지속 가능한 지방 이주 대표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역활력타운 공모에 김제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Advertisement for KBS National Song Competition (KBS 전국 노래자랑) featuring a woman performing on stage.



### 남원시“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일제점검

남원시는 다음달 10일까지 공중화장실 122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등 동절기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제공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먼저 남원시는 공중화장실 시설 및 표지판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하는 동시에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살균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불법촬영카메라 단속 장비를 활용해 화장실 내 불법으로 설치된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기로 했다.

남원시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편의용품 미비, 청소상태 불량, 시설물 파손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부서에 통보해 시정을 요청하고

불법촬영카메라가 확인된 경우 현장 보존 후 경찰에 인계할 방침이다.

또한 남원시는 스마트폰과 소형카메라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고자 시민들에게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무상 대여 하고 있다.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는 온라인, 전화, 방문 등 대여 신청을 한 후 방문 수령하고 일주일간의 대여기간 내에 사용을 마친 뒤 반납하는 형식으로 대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남원시는 이번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을 통해 관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고 앞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 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물 단속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남승/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 차량 공회전 및 배출가스 집중 단속 실시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고 시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5월 말까지 자동차의 불필요한 공회전 및 운행차 배출가스(매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덕양구 관내 공회전 제한지역은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노상·노외주차장 등이다. 공회전 제한지역 내에서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해 우선 행정 계도를 실시하고, 이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지속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대기의 온도가 영상 27℃를 초과하거나 영상 5℃ 미만인 경우에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단속 시에는 자동차 공회전 금지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고양대로 주변 도로에서 단속반(3명)을 투입하여 도로에 주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고 판독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가스(매연) 초과 차량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지속적으로

저감될 수 있도록 계절관리제감시단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영기/기자

### 의료용 마약 불법 유통한 병의원 52곳 적발...사망자 명의로도 처방

병원에서 의료용으로 사용해야 할 마약류를 특정 환자에게 과다 투약하거나 불법 유통한 병의원 52곳이 적발됐다. 사망자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를 처방받거나 여러 병의원을 돌면서 투약한 사람들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대검찰청과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 3만6000여개 가운데 52곳에 대해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점검 결과 조사대상 병의원 52곳 중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 23곳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 가운데 10곳은 행정처분이 병행된다.

또 이외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4곳에 대해서도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

분을 의뢰했다.

병의원 외에도 처방전 위조 의심 환자 1명과 사망자 명의로도 의심 환자 4명, 같은 날 여러 병의원을 방문해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환자 44명 등 49명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 의뢰됐다.

이번 기획 감시는 지난해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 위반 의심 대상을 선정하면서 이뤄졌다.

식약처는 전국 3만6000여 의료기관 가운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병의원 52곳을 선정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이전에는 마약류의약품 품목과 수량 중심의 기록 점검 체계로 과다투약 등 법률 위반 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스템 도입 후 인적정보, 투약·

조제정보, 제품정보 등이 포함된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 오·남용 등 위반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정할 수 있게 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식약처에 마약안전기획관을 신설했다"며 "불법사용 신고 채널 가동 등 마약류 오·남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약안전기획관 산하에 마약류 현장대응팀을 구성,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3월부터 수사·단속 관련 6개 기관이 참여해 운영 중인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 의료용 마약류 범죄에 대한 부처 간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지아/기자

### 천안시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주의 당부

천안시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하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4월 시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21년 23건에서 지난해 2,182건으로 약 100배 가량 급증했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 지역 중 부성동이 4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불당동(250건), 쌍용동(195건) 순으로, 대부분 공동주택의 주차구역에서의 충전구역 불법주차 행위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급속 충전구역에서의 충전방해 행위에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해 1월 개정됨에 따라 지자체 단속이 가능해졌다.

일반차량을 충전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 완료 후 초과 주차, 충전 외 용도 사용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10만 원을 각각 부과한다.

시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충전구역 의무 설치 대상 확대로 충전기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 신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전기차 충전구역 내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여러 차례 공

동주택단지 410여 곳의 관리사무소에 홍보물을 배부했으며 현수막 게시대 35곳에 과태료 부과 홍보 현수막을 게시했다. 또 전광판 등을 통해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함태식 기후대기과장은 "전기차 충전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 충전기 관리자의 충전방해 행위 근절을 위한 충전구역 내 홍보물 부착 등의 홍보와 시민 의식 제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2023 청산도 슬로시티축제

## 봄봄봄 치유정원 청산도로 오라

2023년 4월 8일(토) ~ 5월 7일(일)  
슬로시티 청산도 일원

2023 연호

## 치유의 바다를 낚다, 청정 바다를 먹다.

2023. 5. 4(목) ~ 5. 7(일) / 4일간  
완도해변공원 일원

### 부산시, 청명·한식 기간 산불예방 총력... 위반 행위자 처벌 강화

청명·한식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불꽃쇼 기간 입산객 증가로 산불발생 위험 고조



부산시는 청명·식목일(4월5일)과 한식(4월6일)이 다가옴에 따라 산불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이 기간은 청명·한식과 4월 6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불꽃쇼 행사로 입산객 증가가 예상되며,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옴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어오는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행위 등으로 인한 산불위험요인이 증가도 예상된다.

이에 부산시는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24시간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하며, 자치구·군과 부산시설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동묘지 주변, 사찰, 무속행위 등 산불취약지에 대해 책임구역을 지정하고 휴일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 또, 임차헬기 활용 산불예방 홍보 활동 등도 병행하며 산불발생 원인별로 체계적인 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4월 6일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불꽃쇼에 대응하기 위해 불

꽃쇼 관람이 가능한 주요 산에 300여 명의 인력을 배치해 안전한 불꽃쇼 관람과 산불 예방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산림보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이에 시는 주민들에게 홍보 및 계도·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산불 가해자 검거 및 산불관련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최대 100만 원) 등 처벌 또한 강화하고 있다.

이근희 부산시 녹색환경정책실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불꽃쇼 관람객과 청명·한식 기간 상춘객 등으로 입산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봄철 기온이 상승하고 바람이 많이 불어 산불위험이 높은 만큼 성묘나 산행 시에 흡연, 취사, 불법소각 등을 절대 금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준진/기자

### 영암군,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점검·단속 강화

“신·변종 틱카페, 청소년 발 못붙인다”

전남 영암군은 14일, 영암교육지원청 및 영암경찰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고 신·변종 틱카페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학교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불법업소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신·변종 틱카페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에 침구류나 침대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 및 소파를 갖추거나, 화장실, 욕조 등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 유사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업소를 말한다.

점검반은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미 부착 및 표시 방법 위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틱카페·멀티방 등의 운영 유형 신고·등록 의무 위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고 전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 1차 시정명령



이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위반 정도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관련 조치 위반 시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신·변종 유해업소는

외관상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로워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관내 전체적인 점검·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 미래대도시 발전의 근간이 될 '천안형 도로망' 구축 박차

## 국비 9,643억원 투입, 천안형 외곽순환도로 완성

천안시가 4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미래 대도시의 발전 근간이 될 천안형 도로망의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100만이 살아도 넉넉한 도시 기반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13개 구간 시내·외 도로개설 및 확장을 추진하고 수도권에 버금가는 도로망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사업비 1조 3,660억원이 투입되는 ▲간선도로망 개설 ▲선제적 미래교통수요 반영 도로망 체계 구축 ▲상승정체구간 교통난 해소를 중점 추진한다.

◇국비 9,643억 투입, 6개 주요 간선도로망 개설 추진

시는 오는 2028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국비 9,643억원을 투입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6개 주요 간선도로망 구축에 속도를 낸다. 6개 주요 간선도로망은 천안형 외곽순환도로를 완성하는 주축이다.

국비 5,365억원을 들여 12.9km, 양북 4차로 신설예정인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인 성거~목천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국비 639억원이 소요되는 남천안 나들목(IC)-청삼교차로간 4.3km의 목천~삼룡 우회도로 개설을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골목이 심하고 도로 폭이 좁아

통행에 불편을 겪던 복면-입장 간 국지도57호 2.85km 구간에 국비 553억원을 들여 2차로로의 확장도 착착 진행 중이다.

주요 광역도로망인 국지도 70호 중음봉과 성환을 잇는 9.33km 구간 도로확장과 성환 그리고 입장을 연결하는 9.74km 구간 도로개설에는 각각 국비 881억원, 1,139억원을 투입한다. 완료되면 천안북부지역 교통여건 개선과 농촌지역 균형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비 1,066억원이 투입된 서북~성거 국도대체우회도로(4.4km, 4차로)는 오는 2024년 3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외곽순환도로를 완성하는 최후구간인 천안 목천과 아산 배방 연결사업을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미래교통수요를 반영한 선제적 도로망 체계 구축

지난 1월 아산탄정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연계교통체계구축 개선대책으로 천안시 4개 노선이 확정됐다. 확정노선은 대규모 개발로 인해 복잡해질 교통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천안 내 교통영향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확정 노선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총 797억원을 부담하며, 과선교의 확장(불당22대로~당정 동산 2교차로)과 봉서산 터널 개설을 통한 불당동~성황동 연결도로는 현재의 음봉로와 불당대로로 집중된 교통량을 분산시킬 또 하나의 동서교통축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LH가 266억원의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희망로 연결도로 확장(불당동 펜타포트 뒤편)과 지방도 628호선(아산 송촌교차로~천안 운동장사거리)의 8차로 확장사업도 추진된다.

◇상승정체구간 교통난 해소 총력 대표적 상승정체구간으로 꼽히는 망향로, 동부교차로, 청삼교차를 개선시켜 막힘없이 흐르는 도로를 만든다. 사업비 344억원을 투입해 국지도 23호선 망향로 2.03km 구간(천안IC 앞 교차로~단국대병원 삼거리)을 5차로로 넓히고, 국도1호선 천안대로 구간 중 동부사거리를 전후한 1.81km 구간을 대상으로 492억원을 투입해 도로확장에 나선다.

또한, 국도1호선과 국도21호선의 교차점인 청삼교차로 0.89km 구간도 장기적으로 사업비 709억원을 투입해 지하차로 개설 등 교차로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경배 건설교통국장은 "시민이 체감 가능한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체계적인 도로망 개설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수도권을 뛰어넘는 완성형 도로인프라 구축을 통해 미래 100만 대도시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정근기자

## 동해시, 전기차 폐배터리 산업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

동해시가 미래 먹거리가 될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전기차용 폐배터리 산업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 각국이 전기차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사용연한이 다한 전기차 배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등 2050년에 이르른 폐배터리 산업 시장 규모는 600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배터리 생산에서 차량 탑재, 폐배터리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그린 에너지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국내 주요기업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폐배터리 시장은 수익과 환경 두 가지 측면에서 주목해야 하는 산업으로 급부상 하고 있다.

이에 시는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분야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기술 요소 및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산업화 전망 분석,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입지여건 분석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전략과제 발굴 및 기본

구상 용역 착수에 들어갔다.

특히, 2차전지 소재 중 양극재가 배터리 원가 비중의 52%를 차지하는 만큼, 양극재 종류와 특징, 양극재 제조 공정, 양극재 기술개발 동향, 기업별 기술, 밸류체인 공급망 분석을 통해 폐배터리 산업 국비 공모 등 정부 정책 연계 및 기업유치 방안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해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 등 3대 산업의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수립해 나갈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신규언 시장은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전기차 산업뿐만 아니라 충전인프라, 폐배터리 산업 등 기업유치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미래 먹거리가 될 신성장동력사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강원도 2차 협의 진행

태백시는 지난 4일(화)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강원도와의 2차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협의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로 △2020년 진행된 강원도 1차 협의 의견반영 여부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적정성 △주민공청회 개최 결과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심의하고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강원도 2차 협의가 완료되면 공단 설립의 최종 가부를 결정하는 공단 설립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있는 만큼 해당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지난 2020년 공단 설립 검토 보고 후

강원도 1차 협의를 완료했고, 2021년 공단 설립 타당성 예비 검토, 2022년 8월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결과 필요는 행정절차로 △2020년 진행된 강원도 1차 협의 의견반영 여부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적정성 △주민공청회 개최 결과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심의하고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유성근기자



## 2023년 원주시 테마형 시티투어버스 운행 개시!

제천시, 제27회 청풍호 벚꽃축제...7일부터 9일까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청풍면 물태리 일원에서 '제27회 제천 청풍호 벚꽃축제'를 개최한다.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전격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그간의 틀에서 탈피한 개막식 없는 행사로 진행한다. 비록 벚꽃은 만개했지만 코로나 19를 무사히 이겨내고 진행되는 대면축제라 그 의미가 깊다.

그래서 이번 축제도 주민과 함께 즐기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행사장 내 주민장터가 운영돼 10여 개 청풍면 직능단체가 청풍 농특산물, 향토음식, 간식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 내수 활성화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방문객들을 위해 준비한 무대도 인상적이다. 물태리 마을회관을 주 무대로, 청풍게이트볼장 앞 무대까지 총 2개를 운영한다. 주 무대에서는 ▲7일 청풍 호숫가 오케스트라, 제천어린이합창단과 자전거탄풍경(대표곡 '너에게난나에게 난'), ▲8일 어린이 마술 퍼포먼스,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밴드, ▲9일 색소포니스트 박동준 밴드의 공연이 이어질 전망이다. 청풍게이트볼장 앞 무대에서는 상시적으로 12팀의 버스킹 공연이 진행돼 흥겨움을 더한다.

또한 축제 2일차 오전에는 중앙광장 한켠에서 유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벚꽃 사생대회가 개최되고, 오후에는 중앙광장에서 벚꽃과 어울리는 야간레이저쇼가 펼쳐져 축제의 백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주 무대 등을 연결한 골목길에서는 제천문화재단에서 '온세컬처마켓'을 운영해 수공예품을 판매하고, 만들기 체험도 진행한다.

방문객 안내를 위해 편의시설도 배치했다. 중앙광장(물태리 마을회관 일원), 대 운동본부, 보건소 청풍지소에 종합안내소를 각각 운영해 축제를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주차장은 면사무소 및 청풍초, 제천문화재단지, 하키장 등 일원이 500면이 운영되고, 청풍수석전시관, 청풍면사무소, 보건소 청풍지소 등에서 화장실을 개방해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벚꽃이 만개한 뒤라 다소 아쉽지만, 현장 분위기는 축제 준비로 떠들썩하다"며 "올해 축제에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있을 축제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원주시는 원주의 주요 관광지와 역사 문화 유적지를 연계한 '2023 원주시 테마형 시티투어버스'를 오는 11월까지 운행한다고 밝혔다.

테마형 시티투어버스는 매일 첫째 주 강원감영 등을 둘러보는 '원주 이야기길', 둘째 주 성황림 등 자연을 거닐며 생각하는 '특별한 사색길', 셋째 주 법천사지 등 '남한강 역사문화길', 넷째 주 소금산 그랜드벨리 등 '자연과 함께 힐링길' 등 총 4가지 주제로 나눠 운행된다.

매주 토요일 정기적으로 운행하며, 30명 이상 단체 투어를 원하는 날짜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단, 휴식시간 7~8월과 매일 다섯째 주 토요일, 신청자가 5명 미만일 경우 운행하지 않는다.

기본요금은 5천 원이며, 코스에 따라 체험료 및 입장료가 추가된다.

투어 중 환경정화 활동을 하면 최대 4시간의 봉사 시간이 인정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원주의 대표 관광지를 보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관광산업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김정환기자

**코스안내**

코스명	코스내용	비고
1. 원주 이야기길	원주역사박물관 - 관동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인당 5천 원
2. 특별 사색길	성황림 - 관동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인당 5천 원
3. 남한강 역사문화길	법천사지 - 관동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인당 5천 원
4. 자연과 함께 힐링길	그랜드벨리 - 관동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인당 5천 원

**투어 참여안내**

신청기간: 2023년 4월 10일 ~ 10월 31일 (사전예약 필수)

신청처: 원주시청 문화체육관광과 (033-251-1234)

문의: 원주시청 문화체육관광과 (033-251-1234)

예약비: 5천 원 (단체 30명 이상 4천 원)

결제방법: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환불규정: 출발 30일 전까지 50% 환불, 15일 전까지 30% 환불, 7일 전까지 10% 환불, 당일 0% 환불

단체예약: 30명 이상 단체투어는 별도 문의

문의: 원주시청 문화체육관광과 (033-251-1234)

## 음성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소상공인, 지역주민 대상 맞춤형 상담

음성군은 오는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음성읍 설성문화회관 1층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고충이나 불편이 있어도 직접 공공기관을 방문하기 어렵거나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위해 국민권익위와 협업 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고충민원 해결 서비스다.

상담은 14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음성읍 설성문화회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되며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운영하며 이를 통해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할 예정이다.

주요 상담 분야는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개선 △불공정 거래 △복지 △노동 △농업 등 행정 전 영역이

대상이며,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별도의 예약 없이 당일 현장에서 신청해 상담받을 수 있다.

안은숙 기획사실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주민들의 여러 고충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평소 생활 속 불편이나 애로사항으로 고충을 겪고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예산군,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적극 추진

군민과 함께 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예산군은 주민의 에너지비용 절감과 친환경 에너지전환을 위해 관내 건물 및 주택 322개소에 31억6835만원 투입하는 신재생에너지(태양광·지열)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해 29억2167만원이 투입되는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한국에너지공단, 충청남도, 예산군, 참여기업 간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3월부터 4개 면(광시·대흥·덕산·신암) 일원 209개소(공공시설 1개소, 일반시설 16개소, 주택 192개소)

에 태양광설비 621kW 131개소, 지열설비 1347.5kW 77개소, 태양열 90㎡ 1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개인 주택에 태양광·지열 등 설비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택지원 사업으로 관내 100가구를 선정해 설치비 1억29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경로당 12개소에 7896만원을 투입해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고 주요1리 커뮤니티센터에 3872만원을 투입해 지열 설비를 설치하는 등 에너지 절감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예산군을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소상공인 성장 지원 박차

대구광역시-대구은행-대구신용보증재단 3자 간 중소기업·소상공인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구광역시와 (주)대구은행, 대구신용보증재단은 2023년 4월 4일에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따뜻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구광역시 산격청사에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3교 현상(고금리·고물가·고환율)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됐다.

3자간의 협약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지역 기업이 유망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은행과 재단은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대구은행 재단에 100억원 출연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적극 지원은 은행은 재단에 100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재단에서는 출연금의 15배인 1,500억 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

증을 시행한다. 보증비용과 보증료 우대 혜택 제공 및 우대금리지원 등 이번 협약보증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대구은행의 특별출연 이외에도 대구광역시는 안정적인 신용보증 공급을 위해 재단에 100억 원을 추가로 출연 예정으로, 재단은 당초 수립한 올해 신용보증 공급 목표액을 500억 원 증액해 총 1조 2,7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공급하는 등 더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보증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행정기관,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기업지원 역량이 결집된 협력체계가 구축됐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적극 협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충남에 세계 첫 'OLED 8.6세대 라인' 구축

디스플레이 투자 선포...김태흠 지사·윤석열 대통령·이재용 회장 참석

세계 최초 8.6세대 아이티(IT)용 OLED 전용 라인이 삼성디스플레이 충남 아산캠퍼스에 들어섰다. 이를 위해 삼성디스플레이는 도 등과 협약을 맺고, 4년 동안 민선8기 최대 규모인 4조 1000억 원을 우선 투자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4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에서 열린 '차세대 대형 디스플레이 투자 선포식 및 상생협약식'에서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박경귀 아산시장, 문성준 에이치비테크놀로지 대표이사과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투자 및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티코리아 저력으로 만드는 디스플레이 최강국'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날 협약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이 참석, 디스플레이산업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행사는 김 지사 환영사, 윤 대통령 격려사, 삼성디스플레이 투자 계획 발표, 협약 체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을 위해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는 아산캠퍼스를 중심으로 세계 최초 8.6세대 IT용 OLED 전용 라인을 구축하기로 하고, 2026년까지 4조 1000억 원을 투자한다.

LCD 생산 능력이 급증한 중국이 OLED 시장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에서 IT용 OLED 사업화로 프리미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IT용 OLED는 LCD에 비해 얇고 가벼우며, 쉽게 구부러져 IT기기 설계 등이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

도는 삼성디스플레이의 투자가 계획대로 이행되면, '세계 디스플레이 메카 충남'의 입지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중국과의 초격차 유지 △국내 디스플레이산업 생태계 강화 △핵심 소부장 국산화를 향상 및 공급망 안정화 △지역 및 국가 경제 활성화와 함께 국내 설비업체에 대한 매출 1조 7000억 원 증가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른 투자 및 생산 증가로 인한 신규 고용 창출 인원은 2만 6000여 명으로 예상된다.

도와 아산시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원활한 투자를 위해 제도 개선 등에 적극 협력하고 지원한다.

삼성디스플레이와 소부장 기업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부장 공급망 안



정확을 위한 공동 기술 개발, 성능 평가 등에 협력하며, 소부장 기업 제품 경쟁력이 확인될 경우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구매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영 안정 지원 상생펀드, 물품 대금 지원을 위한 물대지펀드,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크레딧스, 제조 혁신 지원을 위한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상생 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도 협력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전 세계 매출의 4분의 1 정도를 담당하고, 국내 매출의 과반을 책임지

고 있는 디스플레이산업의 중심지"라며 삼성의 이번 투자 결정과 정부의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이어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선도하기 위한 우리 기업의 과감한 투자에 충남은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구축으로 뒷받침하겠다"라며 "규제 개선과 인프라 지원, 인재 양성 등 정부와 함께 확고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방시대를 열어 나아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최정근/기자

## 특허청, 주요국 최초로 반도체전담심사국 만든다

167명 규모 '반도체심사추진단' 출범 등 조직개편 11일자 단행

특허청과 행정안전부는 반도체 기술만을 전담 심사하는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을 골자로 한 특허청 직제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 설비투자 확대 등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국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급변 추진단 신설은 우리 기업의 핵심 반도체 기술에 대한 선제적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정부의 명확한 의지가 담겨있다.

이달부터 추진단이 본격 가동되면 제조·조립공정, 소재, 장비 등 반도체 전 분야를 망라한 물질없는 심사가 가능해져 우리 기업들이 개발한 첨단 기술에 대해 총출력 특허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추진단에 배치될 167명의 전담심사관들이 출원기술을 정밀히 심사해 조속히 권리를 확정해줌으로써, 첨단 기술특허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글로벌) 초격차 우위를 지속 유지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지난 3월, 기술유출 방지 및 신속·정확한 특허심사 제공을 위해 반도체 민간 전문가 30명을 심사관으로 채용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반도체 심사관들이 전기(소자·공정), 화학(소재), 기계(장비)에 분산돼 있어, 신규 인력이 투입돼도 심사역량을 한데 결집시켜 상승효과(시너지)를 내기 어려웠다.

또한, 3나노 이하 등 첨단 공정기술이 속속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심사 전문조직이 미비하여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특허청은 기존 심사관들과 신규 인력을 한 곳에 집중시켜 반도체 우선심사 확대를 통한 심사처리기간 단축 및 3인 협의심사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반도체전담 심사조직 신설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지속 협의해왔고, '반도체 등 핵심 국가전략기술 보호·육성'과 같은 윤석열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에 걸맞은 뒷받침하는 취지에서 추진단 신설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반도체전담 심사국(추진단) 신설-추진단 신설로 특허심사국이 5국에서 6국으로 확대 개편된다. 추진단은 6과·팀 규모로 출범하며, 이를 위해 전기통신심사국 소속 3과를 이관하는 한편, 기관 운영비를 절감해 설치 가능한 총액인건비제 3개팀을 신설키로 했다.

전기통신심사국(100명), 화학생명심사국(15명), 기계금속심사국(21명)에서 136명을 추진단으로 이관·재배치하고, 신규 전문심사관 30명을 투입해 총 167명(단장 1명, 각 과·팀은 25명 내외로 구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각 과별로 기존 심사관과 신규 인력을 적정 비율로 고루 배치해 3인 협의심사 등 원활한 협력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심사효율과 품질 모두 높인다는 복안이다.

② 국(단)위인 기구명칭 변경-디지털 전환(DX) 시대의 총아인 인공지능(AI)·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지능형로봇, 자율주행 등 최첨단 기술

을 다루는 융복합기술심사국 기능에 맞도록 '디지털융합심사국'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디지털기반(플랫폼) 정부 구현에 부응하는 한편, 정책수요자들이 특허·상표 등 방대한 산업재산권 정보·자료(데이터)의 관리·활용 정책을 전담하는 기구 특성을 쉽게 이해하도록 정보고객지원국을 '산업재산정보국'으로 바꾼다.

이인실 청장은 "작년 11월 반도체 우선심사 시행부터 민간 전문심사관 채용에 이은 반도체심사추진단 신설로, 반도체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임 이후 추진해온 조직·인력개편 작업이 일단락됐다"며,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기술유출 우려없이 핵심 기술을 적기 보호받도록 조직·인력운영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조직정책관은 "이번 특허청의 반도체전담심사국 신설이 향후 우리 기업들의 지속적 반도체 초격차 우위 확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정수/기자

### 구례군,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추진

전남 구례군은 건설기계의 노후 엔진을 신형 엔진으로 교체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자 '2023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오는 4월 10일 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한다.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설기계 약 10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장치 규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수는 변동될 수 있다.

사업대상은 2004년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로 노후엔진(Tier-1 이하)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로더, 몰러 등이다. 2005년 이전에 제작된 75kw 이상 130kw 미만의 건설기계와 2006년 이전에 제작된 75kw 미만의 건설기계도 사업대상에 포함된다.

공고일 현재 구례군에 등록된 건설기계로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 △신청일 기준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건설기계의 소유자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선착순이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설기계 소유자는 엔진 교체 구조변경 검사일로부터 2년간 의무 운행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의 추진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에 힘쓰겠다. 많은 군민들의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 2023년 강릉 로컬푸드 상품개발 지원사업 추진

1개소 당 최대 800만 지원, 농촌의 새로운 성장동력 및 경쟁력 확보

강릉시는 로컬푸드를 활용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상품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진 사업자와 개인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먹거리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강릉시가 후원하고 강릉시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이 시행하는 '로컬푸드 상품개발 지원사업'은 상품을 지속 생산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상품개발과 패키지개발 두가지 형태로 지원하고, 상품개발 지원가격은 식품제조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제과업이며, 패키지개발은 업태가 "농업"인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사업체이다.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상품개발은 최대 8개소, 패키지개발은 최대 3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사업 선정 시 1개소 당 최대 800만 원을 지원하고, 참여 기업은 반드시 총 사업비의 20% 이상 자부담하여야 한다.

추후 품평회를 통하여 호응이 좋은 제품은 대외적인 홍보·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하여 지역먹거리 우수 상품으로 발전시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로,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로컬푸드 상품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020년 6개, 2021년 8개, 2022년 14개의 상품개발을 완료한 바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불경기가 지속되는 현 상황에서 강릉의 로컬푸드가 가공 상품으로 무한변신하여 소비시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2023 강릉 로컬푸드를 이용한 상품개발 공모사업

접수기간: 2023.4.17(월)~4.21(금) 18시 까지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주 사업장 소재지가 강릉인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

신청규모: 상품개발 최대 8개소, 패키지개발(농산물) 최대 3개소 선정

지원예산: 업태당 최대 10백만원(농업분야는 신청사업의 20%이상 자부담 필수)

신청방법: 공고내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gnpsc@naver.com)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십시오.

문의처: 033-548-3636 강릉시농촌신활력플러스추진단

## 경기도, 도내 섬유기업 신소재 개발부터 친환경 인증까지 맞춤형 지원

국내외 환경 규제 및 수출·내수 어려움 극복 등 도내 섬유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

경기도가 국내외 환경규제와 수출·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섬유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섬유소재연구원과 함께 ▲섬유-패션 친환경 글로벌 인증 지원 ▲섬유기업 맞춤형 신소재 개발 사업 ▲섬유분야 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 등 3개 분야를 지원한다.

첫째, '섬유-패션 친환경 글로벌 인증 지원사업'은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섬유-패션분야 중소기업에 글로벌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세계적인 친환경 인증인 오코텍스(OEKO-TEX)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 취득 비용의 최대 70%까지, 기업 당 최대 2개 인증,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도는 사업참여 독려와 친환경 인증에 대한 공공증 해소를 위해 오는 18일양주와 27일 안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사업 참여를 희

망하는 도내 기업은 5월 4일까지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둘째, '섬유기업 맞춤형 신소재 개발 사업'은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용 시제품 제작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소재 산업용 섬유소재 생산기업이거나 산업용 소재로 전환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2,5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셋째, '섬유분야 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요구되는 제품안전 시험수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기업유형에 따라 소상공인 80%, 중소기업 60% 범위에서 지원하며, 기업 당 최대 300만 원(안전확인대상제품 최대 100만 원)을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품목은 '안전기준준수대상제품(가



정용섬유제품, 가죽제품 등)',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아동용섬유제품, 어린이이용가죽제품 등)', '안전확인대상제품(유아용 섬유제품)'이다.

노태중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장은 "환경규제와 수출·내수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섬유기업이 해당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내 업체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 사상구의회 신혜정 의원, '대한민국 글로벌크라운 대상' 수상

부산 사상구의회 신혜정 의원은 지난 3월 31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글로벌크라운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 분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2023 대한민국 글로벌크라운 대상'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치, 지방자치, 국제, 경영, 사회, 의료, 문화 분야에서 대한민국 혁신 성장동력 가치를 인정받은 인사들을 선정해 시상한다.

신혜정 의원은 다양한 의정 활동과 정치·정무 활동, 사회봉사 활동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신혜정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송종진/기자

### 대구광역시, 민방위 업무 유공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 행안부 주관 매년 민방위 분야에서 헌신한 개인·단체(기관)에 수여

대구광역시가 행정안전부의 2022년 민방위 업무 유공포상에서 국무총리 기관표창 수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일선기관(단체) 및 지자체 시기진작을 위해 민방위 분야에서 헌신한 개인·기관(단체)을 대상으로 매년 전국단위 포상을 수여해 왔다.

이번 포상은 민방위 분야(교육·훈련, 시설장비, 경비시설, 검열) 전반의 업무실적을 국가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도, 고객 만족도, 창조적 기여도의 공통지표(40%)와 공격기간, 업적도, 기여도, 난이도, 평판도, 인지도, 창조도의 특성지표(60%)를 토대로 평가해 수상기관을 선정했다.

대구광역시는 코로나19 시대 전국 최초 맞춤형 사이버 교육 시행,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한 비상급수시설 개선을 통한 비상대비태세 강화, 주민생명보호와 안전을 위한 비상대피시설 비상용품함 구비, 민방위 시설·장비 담당자 교육 전면실시로 시설장비 유지·관리 능력제고, 민방위 시설·장비확보와 효율적 관리,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확보를 제고(최근 3년간 방독면 확보 36% 확대), 신속한 경보전달체계 구축 및 민방위 경비시설 보안 강화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종환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오늘날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무기 고도화와 전쟁 또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대비,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발생하는 자연재난, 급격한 산업화로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회재난에 대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방위의 활동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라며, "향후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긴박하게 발생하는 각종 재해·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대시민 홍보와 교육·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조규성 선배처럼... 상무 출신 국가대표 꿈꾸는 이영준

김천상무의 장신 공격수 이영준은 조규성(전북현대), 오현규(셀틱)처럼 상무에서 성장해 성인 국가대표팀까지 선발되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김천상무는 30일 오후 7시 대전월드컵 보조경기장에서 치러진 대전코레일FC와의 FA컵 2라운드에서 2-1 승리했다. 전반을 0-0으로 마친 상무는 후반 12분 교체투입된 이영준이 2분 만에 선제골을 기록하며 앞서갔다. 이후 대전코레일FC 김민혁에게 동점골을 허용했으나 후반 추가시간 4분 강현목의 극적인 결승골이 터지며 3라운드에 진출했다.

상무는 최근 각급 대표팀에 소집됐던 조영욱, 권찬홍 등 주축 공격진을 명단에서 제외된 뒤 FA컵 2라운드에 나섰다. 이들을 대신해 이영준, 구본철, 김민준 등 리그에서 중용되지 못한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했다.

이 가운데 가장 돋보인 것은 후반 교체 투입된 이영준이었다. 그는 교체 투입 후 2분 만에 헤더 득점으로 선취골을 기록하며 경기 흐름을 바꿨다. 경기 후 만난 이영준은 "밖에서 선배님들이 응원도 많이 해주고 좋은 말도 해주셔서 힘이 됐다. 기회를 잘 살린 것 같다"며 겸손함을 드러냈다.

이영준은 이날 득점 상황처럼 큰 키(190cm)를 바탕으로 한 제공권에서의 높이가 자신의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헤더 공중볼 경합에 자신이 있고, 스크린플레이



이나 동료와의 연계도 좋아한다. 그런 플레이를 경기장에서도 많이 하고 싶다"면서도 "그러나 무엇보다 공격수는 마무리능력이 좋아야 한다. 김지현 일명님과 슈팅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 이영재 병장님도 슈팅에 대해 많이 알려 주신다"며 공격수로서 보완할 점에 대해 언급했다.

이영준은 올해 1월 원소속팀 수원FC를 떠나 김천상무에 입대했고, 지난 3월에는 U20 국가대표팀 소속으로 U20 아시안컵 무대를 밟았다. 연초부터 소속팀이 바뀌었고, 연령별 대표팀에서 활약하는 등 여러모로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영준은 "아시안컵에서 경기를 많이 뛰지는 않았지만 득점을 못해서 적잖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팀에 돌아온 뒤 첫 경기에 바로 골을 넣어서 기분이 좋다. 덕분에 좋은 시즌을 시작할 것 같다"고 말했다.

상무는 '공격수 사관학교'라 불릴 만큼 다양한 국가대표 공격수들을 배출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조규성(전북현대), 오현규(셀틱)처럼 어린 나이에 상무에 입대한 뒤 성장해 성인 국가대표팀까지 선발되는 사례가 늘어났다. 이영준은 "상무가 운동여건이 잘 되어 있다. 웨이트 트레이닝 시설도 잘되어 있고, 좋은 선배님들과 함께 배울 수 있다"면서 "이런 환경 속에서 운동하다 보면 5월에 있는 20세 월드컵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개인적인 목표까지 이룰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다가올 U20 월드컵과 성인 국가대표팀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최만식/기자

###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 제24회 강원도 장애인복지대상 수상자 선정

#### 3개부문 수상자 선정, 강원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6.9) 시 수여

강원도는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하고자 4월 3일 제24회 강원도 장애인복지대상 수상자 선정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장애인복지대상은 장애인의 사기를 고양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한 개인·가족·단체 등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24회를 맞이했다.

시상 분야는 '자랑스런 장애인', '장한 장애인가족', '고마운 장애인봉사' 3개 부문으로,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6.9. 예정)에서 상패를 수여한다.

장애를 극복하고 자립의지가 모범이 되는 장애인에게 수여하는 '자랑스런 장애인'에는 시각장애인이면서도

회원인면서 도여성장애인단체 운영위원장 여지영씨가 선정됐다. 여지영씨는 장애인단체 행사에 참여하여 가수, 강연 등을 통한 재능기부를 활발히 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 의료비 지원후원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경희 복지국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오는 6월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특별할 지위를 가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만큼 장애인 복지 향상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도민이 원하는 복지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 영광군 관광두레 차상혁 PD, 전남 섬·해양 관광 콘텐츠 발굴 공모서 최우수상 수상

영광군 관광두레 차상혁 PD가 지난 23일 전라남도 관광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2023년 전남 섬·해양 관광콘텐츠 발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 콘텐츠로 선정되어 전라남도지사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2023년 전남 섬·해양 관광콘텐츠 발굴 공모전』은 전라남도도와 전라남도관광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공모전으로 섬·해양 자원을 활용한 신규 관광콘텐츠 발굴을 위해 섬 및 관광분야 학계·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4명의 심사위원이 평가를 진행했다.

금번 공모는 섬·해양 Theme New 전남을 주제로 섬·해양 테마여행 코스,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새로운 미식상품, 지역을 상징하는 관광기념품,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관광정보 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지역성, 창의성, 활용도, 실천가능성 등 네 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우수 콘텐츠를 선정했다. 공모전 입상자에게는 시상금과 함께 청년 관광 전문가 육성 지원사업인 '청춘어람 전문가 양성과정'에 우선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

차상혁 PD는 영광군 관내 소재 주민사업체와 연계하여 관광콘텐츠를 기획, 개발, 운영하는 영광군 관광두레PD로 주민주도형 관광콘텐츠 육성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영



광군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민사업체 연계한 체류형·체험형 관광콘텐츠 제작에 앞장서고 있다.

차PD는 "금번 공모전 수상은 영광군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밝혔으며, 영광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영광군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주민 사업체 등 지역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위한 차상혁 PD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체류형·체험형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한 영광군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 '제9회 대구광역시 장애인대상'수상자 선정

#### 장애극복부문 김순근(59세, 남, 대한안마사협회 대구지부장)

대구광역시는 3월 31일, '제9회 대구광역시 장애인대상'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애극복부문에 김순근씨와 장애봉사부문에 박숙희씨를 수상자로 선정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하는 대구광역시 장애인대상은 장애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립에 성공하여 타인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을 위해, 헌신·봉사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한 개인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해까지 총 15명에게 수여됐다.

장애극복부문 수상자인 김순근(59세, 남)씨는 부산지방우정청 공무원으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중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급성당뇨로 시력을 잃게 됐다. 갑작스러운 불행으로 인한 절망적인 순간에도 삶의 희망을 잃지 않게 해준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으로 안마사로서의 제2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했다.

안마를 통해 타인의 피로와 고통을 줄여주는 것에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성실히 직업생활을 하면서도 안마봉사단을 구성해 정기적인 안마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앞장섰다.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정기적인 급식지원활동으로 출산수범해 자원봉



적인 식견을 넓히고자 만학도로 사회복지사 자격도 취득해 동료 장애인들의 귀감이 됐으며, 2017년부터는 대한안마사협회 대구지부장으로서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시각장애인으로서 자립과 생활에 출산수범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장애봉사부문 수상자인 박숙희(73세, 여)씨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등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해 꾸준히 자원봉사활동과 후원활동을 펼쳐온 봉사자다.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정기적인 급식지원활동으로 출산수범해 자원봉

사단체 '좋은만남봉사단'을 조직하여 운영했고, 경로잔치, 하계수련회, 송년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병원 진료 등에 차량 이동을 지원했다.

또한 지역 내 사회복지 유관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여 복지관 급식 지원 및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 및 장애인을 위한 도시락과 밀반찬 등을 조리·지원했고,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행사, 김장 나눔 활동, 명절 물품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장애인대상 시상식은 4월 20일 두류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개최되는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뤄질 계획이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복지국장은 "장애의 역경을 이겨내고 당당히 세상과 소통해 희망의 상징이 되는 분과 장애인의 복리 증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해온 분께 장애인 대상을 드리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따뜻한 등불을 밝혀주시는 숭은 영웅들을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2023서울드럼페스티벌, 대표 프로그램 드럼경연대회 '더 드러머(The Drummer)' 참가자 모집

### 드럼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경연대회 신청 가능

올해로 25회차를 맞이하는 서울시 대표 음악축제 '서울드럼페스티벌'의 대표 프로그램인 드럼경연대회 '더 드러머(The Drummer)'가 자신의 드럼실력을 전 세계에 선보일 참가자를 모집한다.

지난 2017년 서울드럼페스티벌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드럼경연대회 '더 드러머(The Drummer)'는 매년 200명 이상의 참가자가 참여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드럼경연대회이다.

조기훈, 이귀남, 조찬우, 황민재 등 '더 드러머' 출신 드러머들이 슈퍼밴드 등 각종 방송에 진출하고 한국 대중음악 신을 이끌어 나가는 인기 드러머로 성장하면서, 국내외 드럼 입문자 및 매니아 층에게는 '신진 드러머 등용문'으로 입소문을 타며 해마다 열띤 경연이 펼쳐지고 있다.

'더 드러머(The Drummer)'는 드럼에 열정이 있는 전국의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하여 자신의 드럼 실력을 뽐낼 수 있으며, 프로부문에 한해 외국인도 참가 가능하다.

참가부문은 학생부(▲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와 일반부(▲아마추어 ▲프로) 총 5개로 나뉘어 부문별 경연이 이루어진다.

모든 부문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일반부 중 프로부문은 외국인도 참여 가능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상의 회복과 활기를 다시 찾아가는 요즘, 드럼에 대한 본인의 열정과 실력을 알리고 싶은 전세계 연주자들이 이번 대회에 도전해 멋진 경연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신청은 4월 5일부터 4월 28일까지 서울드럼페스티벌 누리집을 통해서 가능하다.

참가신청을 위해서는 참가자 전원

이 본인확인이 가능한 드럼 연주영상(1분30초~3분 ※부문별 규격 상이)을 제출해야 한다. 본인의 드럼 연주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한 후 서울드럼페스티벌 드럼경연대회 접수 게시판에 유튜브 링크,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등록하면 된다.

경연대회는 예선심사(영상심사)→본선대회(현장 실연·심사)→시상 순으로 진행된다. 예선심사는 접수된 연주영상으로 비대면 심사를 진행하며 본선은 노들섬 라이브 하우스에서 현장 실연을 심사하여 최종순위를 결정한다.

예선심사(비대면 영상심사)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25팀(부문별 5팀)을 선발하며, 본선 무대는 5월 13일(토) 노들섬 라이브하우스에서 온라인 생중계와 동시에 진행된다.

본선대회에서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순위를 결정하고 시상식은 5월 26일(금) 노들섬 야외무대에서 진행된다.

학생부(▲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수상자에게는 서울특별시 상장을 수여하며, 일반부(▲아마추어 ▲프로) 수상자는 악기브랜드사의 협찬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부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일반부 중 프로부문 수상자 3인(팀)에게는 '2024년 서울드럼페스티벌' 메인무대에 '라이징스타'로 설 수 있는 공연 기회와 함께, 세계 최대 타악기 음악협회인 'Percussive Arts Society(P.A.S)'가 발간하는 정기 매거진 인터뷰 기회 및 해당 협회에서 진행되는 드럼 경연대회(Solo Drum Set Competition) 참가를 위한 항공권 등 특전을 제공한다.

한편, '제25회 서울드럼페스티벌' 메인무대는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노들섬에서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개최된다.

**THE WORLD BEST DRUM COMPETITION THE DRUMMER**  
두드려라, 나를 표현하라!

드럼경연대회 'THE DRUMMER'에서 세계를 두드려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경연대회 주요 일정**

- 예선심사 접수: 2023. 4. 5. (화) ~ 4. 28. (금) 18:00
- 예선심사 발표: 2023. 5. 13. (토) \*19:00
- 본선(현장경연): 2023. 5. 13. (토) \*19:00
- 시상: 2023. 5. 26. (금)

**참가자격**

- 본선심사: 2023. 4. 5. (화) ~ 4. 28. (금) 18:00까지
- 참가대상: 드럼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본선심사 대상은 18세 이상)
- 참가부문: 5개 부문 (학생부: 초·중·고등부, 일반부: 아마추어, 프로)

**시상**

학생부 수상자: 서울특별시 상장 수여  
일반부 수상자: 총 500만원 상당의 부상 제공  
프로부문 수상자: 2024 서울드럼페스티벌 메인무대 특별 공연 기회 제공

**문의 방법**

서울드럼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 행사 신청서 제출  
\*신청서 내보내기 후 로그인 필수

문의처: 서울드럼페스티벌(www.seoul-drum.com)

문의전화: 02-7758-3352 (am 10:00 ~ pm 19:00)

주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문화재단, 서울특별시문화재단 후원

주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문화재단, 서울특별시문화재단 후원

주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문화재단, 서울특별시문화재단 후원

이어서 5월 27일에는 해외 아티스트의 퍼커션 명강연을 눈앞에서 들을 수 있는 '마스터클래스'도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드럼페스티벌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서울드럼페스티벌의 대표 경연프로그램 '더 드러머(The Drummer)'는 이제 축제의 한 페이지를 넘어 명실상부 드러머들의 꿈의 무대가 됐다"며 "드럼에 꿈과 열정을 가진 전국의 많은 청년들에게 이번 대회가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인파만파'제61회 진해군항제 450만여 명 찾아 '안전축제 성료'

### 경제유발효과 2600억원 추정, 외국인 관광객 54만여 명 다녀가



4년 만에 열린 진해군항제는 그야말로 '인파만파(人波萬波)'였지만,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는 '안전축제'로 마무리됐다.

창원특례시는 지난달 25일부터 열흘간 달려온 제61회 진해군항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평년보다 높은 평균 기온에 따라 벚꽃이 일주일 정도 빨리 개화할 것으로 보고 개막일을 앞당겼다. 또 코로나19로 4년 만에 축제를 재개하는 가운데 여행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보고 올해 군항제 방문 관광객을 역대 최대인 450만여 명으로 예상했다.

예상은 적중했다. 개막일인 3월 25일, 진해구의 벚꽃 개화율이 70%에 달해 시작부터 구름 인파를 이뤘다. 이어 4월 3일까지 아름다운 벚꽃 향연이 펼쳐진 진해군항제를 다녀간 방문객은 450만여 명이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보다 40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다 수치를 달성한 것이다.

경제유발효과는 2019년 진해군항제를 찾은 방문객 1인당 소비지출금액(지역주민 3만7500원, 외지인 6만3800원)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2600억 원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관광객은 전체 방문객의 12%인 54만여 명으로, 2019년보다 20만여 명이 증가했다. 특히 중화권 관광객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다만 관광객의 경우 22만여 명이 방문, 지난달 30일 린펀푸(林宸富) 주한국 타이페이 대표부 부산사무처 총영사가 창원시와 타이페이의 지속적인 관광 교류를 위해 진해군항제를 다녀가기도 했다.

시는 이러한 '대흥행'의 요인을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여행 심리가 4년 만에 축제 재개로 폭발하는 이른바 '보복 관광' 심리 △축제 기간 내 이어진 화창한 기후 및 평년보다 긴 만개 기간 등으로 꼽았다.

올해 진해군항제는 낮에는 36만 그

루 벚꽃이, 밤에는 공연과 먹거리, 그리고 벚꽃을 감상 조명과 불꽃이 진해 곳곳을 아름답게 물들였다.

과거 중원로터리 일대에 집중됐던 행사를 진해구 전역으로 넓히면서 진해루, 여좌천, 경화역, 해군사관학교, 11부두 등 곳곳에서 연일 다채로운 문화예술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중원로터리에는 'K-방산의 주력' 창원시 소재 기업이 생산한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전시해 이색 포토존으로 인기를 끌었다.

또 진해루 밤바다를 화려하게 수놓은 '이충무공 승전기념 해상 불꽃쇼'와 진해군항제의 백미, 대한민국 육·해·공군 해병대 등 전 군(軍)과 미8군악·의장대, 영광고등학교 마칭밴드 등 14개 팀 700여 명이 펼친 '2023 진해 군악의장 페스티벌'은 각각 2만 명이 넘는 관람객 수를 기록하면서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돼 '안전축제'라는 호평을 받았다.

이는 시가 인파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처음으로 '이동식 대중경보시스템(Mobile Warning System)'을 도입해 군항제 기간 인파 밀집 우려가 있을 때 가동하고,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6000여 명을 행사장 곳곳마다 안전 및 교통 관리 등에 투입한 결과다. 또 교통 대책으로 군부대와 학교, 관공서 등에 임시주차장 1만5000여 면을 확보하고, 관광객이 가장 몰리는 여좌천 일대는 차 없는 거리 및 한 방향 통행 거리로 지정하는 한편 주말마다 축제장으로 진입하는 무료 셔틀버스와 임시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해 관광객 편의를 높였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4년 만에 열리는 진해군항제에 보내주시는 기대만큼 지역주민 여러분의 불편 역시 컸을 텐데도 아낌없는 협조와 지지를 보내주셔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안전하고 내실 있는 진해군항제를 위해 손을 모으신 진해구민과 경찰, 소방, 해군 등 유관기관 관계자, 자원봉사자,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 '천안위례벚꽃축제' 4년 만에 정상 개최

천안북면위례벚꽃축제추진위원회가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간 은석초등학교 일원에서 '제8회 천안위례벚꽃축제'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벚꽃축제가 전면 개최된 것은 4년 만이다.

올해 8회째를 맞이한 '천안위례벚꽃축제'는 북면 주민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축제추진위원회를 결성해 함께 만들어 나가는 지역 축제다.

축제추진위원회는 '벚꽃, 천안을 품다'라는 주제로 개·폐막식,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축제 첫날인 8일 오후 1시에는 대학 동아리 공연과 천안위례벚꽃 가요제 본선이 열린다. 오후 6시 화려한 개막식이 개최되며 경품 추첨과 가수 강유진의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9일에는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과 가래떡 뽕이 이벤트, 각종 오락 행사가 진행되며 가수 구나윤의 공연을 끝으로 폐막할 계획이다.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과 벚꽃가요제는 위례벚꽃축제 공식 블로그를 통해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부대행사로는 꽃 떡·다육 화분·부채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마당과 전국 각지의 지역 특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농특산물 판매장이 운영된다.

김재훈 축제추진위원장은 "4년 만에 개최되는 축제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며 "시민들이 벚꽃과 함께 봄의 정취를 마음껏 만끽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정근/기자



# 용인문화재단, MZ 세대를 위해 다시 돌아온 'ATTENTION MZ - Live' 콘서트

### 5월 초저, 새벽공방 / 7월 영지, 키코 / 9월 윤판판, 초승 with MC 주궁정

용인문화재단(이사장 이상일)은 MZ 세대의 니즈를 충족시킬 대중문화 아티스트를 초청해 다양한 매력의 공연을 선보이는 '어텐션 엠지 라이브(ATTENTION MZ - Live)' 콘서트를 오는 5월 27일, 7월 29일, 9월 23일 총 3회에 걸쳐 용인시문화재단 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용인 처인구의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기획돼 작년 처인홀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어텐션 엠지 라이브'는 티켓오픈 즉시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은 콘서트로 트렌디한 라이프 스타일과 확고한 가치관, 취향 등 현 세대를 주도하는 MZ 세대 대상 맞춤형 공연이다.

올해 특히 유명 아티스트와 신인급 아티스트의 조합으로 숨겨진 보물 같은 신예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해 관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5월 27일 첫 공연에서는 대표곡 'Boat', '바라봐줘요' 등으로 국내 대형 페스티벌에의 단골 초청 아티스트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초저와 새벽 감성에 어울리는 음악을 빚어낸다는 뜻처럼 인디계의 신선한 바람이라 평가받는 여성 듀오 새벽공방의 공연으로 감성 충만한 여름의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두 번째 공연 7월 29일에는 M.net '쇼미더머니11'의 최초 여성 우승자이자 tvn '뽕뽕 지구오락실' 등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MZ 세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래퍼 영지가 출연하며, M.net '아티스타 게임'의 우승자로 해외에서 먼저 주목하는 키코의 파이프라인 무대까지 여성 힙합 뮤지션들의 공연을 선보인다.

마지막 9월 23일 공연에서는 청춘

의 감성과 이야기를 노래하는 감성 보컬리스트들의 만남으로 싱어송라이터 윤판판의 특유의 부드러운 음색과 따뜻한 목소리로 관객들을 찾아가며, 2020년 9월 첫 번째 싱글 '내게 가기가 붙어 걸여 줄래'로 데뷔한 가수 초저가 함께한다.

특히 9월에는 MC 주궁정이 관객과

아티스트를 연결하는 매개자로서 가을 청춘들의 감성을 다채로운 음악과 이야기로 풀어갈 예정이다.

본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로 티켓 가 전석 3만 원이며,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인터파크 티켓에서 예매 가능하다.

조혜영/기자

**2023 ATTENTION MZ-LIVE**

5/27(토) 17:00 초저 새벽공방

7/29(토) 17:00 영지 키코

9/23(토) 17:00 윤판판 초승 MC주궁정

주소: 용인시문화재단 처인홀 | 티켓: 전석 3만 원 | 후원: 초승, 새벽공방, 용인문화재단

문의: 용인문화재단 | 후원: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 인터파크 티켓 | 문의: 031-260-3255/3258

주최: 용인문화재단

# 수원시 장안구, "만석공원에서 벚꽃 사진 찍으면 선물 드려요"

### 7~8일 '2023 만석거 벚꽃 축제' 인증샷 이벤트... 개인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면 추첨으로 커피 기프티콘 증정

수원시 장안구가 7~8일 이틀간 만석공원에서 펼쳐지는 '2023 만석거 벚꽃 축제' 프로그램의 하나로 '벚꽃과 함께 찰카' 이벤트를 진행한다. 축제 기간 중 만석공원에서 찍은 인증샷을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주는 행사다. 공모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50명을 선정해 15일까지 개인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준다.

응모하려면 축제 현장에서 벚꽃과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다음 장안구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이벤트 페이지에 '참여완료' 댓글을 남겨야 한다. 장안구 인스타그램 팔로우, '#만석거벚꽃축제'와 '#장안구벚꽃축제' 해시태그도 필수다. 하현승 장안구 행정지원과장은 "벚꽃 만발한 만석공원에서 가족, 친구와 사진도 찍으시고 기분 좋은 선물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벚꽃과 함께 찰카' 사진 업로드 이벤트**

'만석거 벚꽃축제' 현장 인증샷 찍고 커피 기프티콘 받아가세요~

2023.4.7(금) ~ 4.8(토) 18:00 마감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위치를  
희망합니다

